금주의 기도

예수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 4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5월 19일 (토) **제 168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령이 오셔서 우리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2018년 성령강림주일 맞아 고대교회 예전 전통 통해 성령강림 의미 재확인

부활 후 50일의 마지막 날은 부활절 여덟째주일인 성령강림주일이다. 오순절이 부활절 여덟째 주일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고대교회가 주일을 제8일이라고 불렀듯이, 또한 파스카팔부의 여덟 번째 날을 성대하게 축하했듯이 부활절 여덟째 주일을 '주일 중의 주일', '큰 주일'이라고 불렀다. 서방교회는 부활절 전야에 미처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성령강림주일에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활절의 의미가 성령강림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사실, 세례 받는 것은 물로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기에 성령강림주일에 세례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령강림이 교회의 탄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내에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강조돼야 한다.

고대 교회는 성령강림주일을 크게 축하했다. 부활 전야제처럼 성령강림 전야예배를 드렸다. 이 전야 예배 때는 구약의 네 본문을 읽었다. 이 네 본문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신비를 잘 포착하여 드러내어 주는 본문들이다. 첫째 본문은 창세기 11장으로, 오순절 성령강림이 죄로 인해 수없이 분열되어 있는 인간모임을 하나로 만드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둘째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인데,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법을 선포해 주신 것을 축하한다. 셋째 본문은 에스겔 37장인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본문은 요엘 2장인데, 오순절 성령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바로 그 구절이다. 이제는 말세가 되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선포한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로, 이 날에 신약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 각국에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것은 구약시대 바벨탑 사건으로 나누어졌던 언어가 통일되는 굉장한 사건이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무리, 즉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교회가 하지 못했던 복음전파의 사역을 새로운 이스라엘, 즉 신약교회가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출현했다.

성령께서는 창조의 영이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요청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지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한 후에 성령께서 수행하시는 첫째 사역이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성도의 교통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성령강림절이 가까워지면 강단장식이 화려(?)해진다. 계절이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다양한 꽃들로 강단을 장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부활 후 50일간에 부활초를 켜 놓았다. 부활의 빛이 온 땅을 밝히 비춰주실 것에 대한 기대이다. 성령강림절에는 붉은색 꽃들로 마치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은 장식을 하기도 한다. 부활 후 50일간 독서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이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서론(1:1-18)을 여러 언어로 읽으므로 이후로는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독서를 시작한다.

부활은 충만한 절기이다. 그래서 단 하루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 성령강림주일에까지 이르는 50일간을 축하한다. 성령강림절에 이르면 충만도 절정에 달한다. 부활과 성령강림을 통해 우리는 충만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 세상적인 결핍속에서도 영적인 충만을 누릴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KPCA 43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임 총회장 원중권 목사, 부총회장 이기성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제43회 총회

총회장 원중권 목사

부총회장 이기성 목사

부총회장 전홍권 장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박성규 목사) 제 43차 총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미니카 류 팔레스 바바로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 원중권 목사(아르헨티나 소망교회) △부총회장 이기성 목사(밴쿠버삼성교회), 전홍권 장로(가나안교회)가 선출됐다.

나머지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서기 이재광 목사(동남) △부서기 박상근 목사(서북남) △회록서기 송민호 목사(카동) △부회록서기 지영환 목사(서) △회계 한광호 장로(필라) △부회계 허종학 장로(서중) △영문 회록서기 다니엘주 목사(나성영락).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는 8일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박성규 목사가 '항공모함 같은 교회'(행13: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교회는 크루즈가 아닌 항공모함으로 승선자 모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전투요원"이라며 "세상의 죄악과 마귀권세를 향해 영적전투를 하는 교회로, 복음을 몰라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교회처럼 인종, 신분, 국적, 세대를 뛰어 넘는 넓은 가슴을 안고 순종하는 회원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축원했다.

개회예배는 원중권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억희 장로의 기도, 서명성 목사의 성경봉독, 중남미노회 중창단의 찬양, 총회장 박성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gospelmall@hotmail.com

2면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7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

일시: 2018년 5월 20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감사한인교회 본당

〈구봉주 목사 약력〉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Talbot Theological Seminary Th. M 과정 중

< 모시는 글 >

금번에 감사한인교회의 구봉주 목사님 취임과 김영길 목사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영길 목사님은 지난 1983년 3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감사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섬겨 오셨습니다.
또한 구봉주 목사님은 8년 동안 본교회의 청년담당 부목사님으로 섬겨 오셨습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한인교회 당회원 및 성도 일동

< 순서를 맡아주시는 목사님들 >

- 설교: 손병렬 목사님 (포항중앙교회 담임)
- 취임 서약: Rev. Rich Guerra 목사님 (SoCal Distirict Superintendent, AG)
- 권면: 지용수 목사님 (창원 양곡교회 담임)
- 축사: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원로)
- 축사: 이정현 목사님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 축사: Rev. Ray Rachels (Executive Presbyter, AG)

< 김영길 목사가 인도하는 은퇴 기념 부흥성회 >

5월 6일	주일예배 (1,2,3부)	
5월 7일	월요일	저녁 7:30
5월 8일	화요일	저녁 7:30
5월 9일	수요일	저녁 7:30
5월 10일	목요일	저녁 7:30
5월 11일	금요일	저녁 7:30
5월 12일	토요일	저녁 7:30
5월 13일	주일예배 (1,2,3부)	

< TMF 사역 소개 >

감사한인교회는 김영길 원로목사님께서 은퇴 후에도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TMF에서 하게 될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비량 부흥성회 인도 (원하시는 교회는 tmfspirit@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오.)
■ 선교지 개발과 후원 사역 ■ 장학생 돕기 사역 ■ 긍휼사역
■ 김영길 목사 신앙서적 출판 사역

〈김영길 목사 약력〉

한국신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서울 기독대학교 Ph.d
AG 한국총회 총회장 역임
미주 밀알 이사장

ASSEMBLIES OF GOD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www.thanksgivingchurch.com
714.521.0991

시 론

어머니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사회주의 이상을 꿈꾸던 가슴 뜨거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1950년 의용군으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고 팔공산 전투에서는 한 쪽 팔을 잃어버리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리던 시점에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좇아 홀로된 어머니를 남한에 둔 채 월북하게 됩니다.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어머니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좇아 월북하고 난 다음 삶을 향한 소망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홀어머니를 남한에 두고 월북한 아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3살 때부터 모교 강단에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0여권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집필했고 그런 공로로 인해 인민과학자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시와 수모를 받았지만 오직 수학공부 하나만 붙들고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50여년 가까이 어머니와 헤어져 살아오면서 어느 덧 70 나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게 되고, 마침내 한 달 뒤인 2000년 8월 1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50년 동안 헤어져 지냈던 88세의 연로하신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반세기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된 아들은 가능한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50여년 만에 만난 어머니, 젊은 시절에 헤어졌던 어머니가 이제는 완연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20대가 채 되지도 못한 나이에 헤어진 아들이 70이 다 되어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그 만남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3박4일의 서울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아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에서 혹독한 비판과 성토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서울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판의 내용 중에는 '어머니가 낳아만 주었지 그 외 무엇을 해주었는지' '장군님 덕분에 교수되고 박사되고 세계적인 수학자로 컸는데 어찌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였는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당한 뒤부터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린 것이 그리도 큰 잘못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자신에게 던져 보지만 언제나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왔고 그래서 더 비통하고 쓰라린 마음이 가슴을 채우게 됩니다.

결국 그는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서 수면제를 받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나 둘 모아진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 자신이 젊은 시절 한 발짝 잘못 디딘 결과로 그렇게 가슴 아픈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후회와 통한이 남는다고 말한곤 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좇아 외아들을 둔 어머니를 남한에 남겨두고 월북했던 조주경 젊은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조차도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사상과 이념은 결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삶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맺어진 혈연을 뭉개거나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날'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땅 위에 맺어진 인간관계 중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모방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돌아보게 하고 만지게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thechoi82@yahoo.com

교회에는 관리자보다 리더가 있어야 한다!

처치리더스.컴, '리더십과 교회발전' 분야전문 레일랜드(Don Reiland) 목사의 노하우 소개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훌륭한 관리자 모두가 다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를 추켜세우고 관리자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관리는 본질적인 기능이어서 관리자는 동료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원이다.

그러나 관리와 리더십의 기본적인 역할 차이가 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잘 관리할 수 있지만, 항상 최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관리 기술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알고 지내는 최고의 리더 중에서는 아주 세심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은 리더십에 관련한 중요한 특정 분야에 매우 세심하다. 이런 예가 바로 교회의 재정 분야다.

숫자에 우둔한 큰 교회의 담임목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들은 재정 관리에 시간을 쓰지는 않지만 리더십에 대한 보고서는 잘 이해한다. 관리와 리더십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많이 들어왔지만 기본적인 구별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추고 싶다(Great Distinction Between Managers and Leaders).

앞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실질적인 길라잡이를 해보겠다. 첫째, 우리는 모두 '일을 끝낸다'. 사실, 상당한 많은 기간을 사용해서 일을 끝낸다. 하지만 리더와 관리자 모두 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와 리더가 할 때 뭔가 이뤄지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

크게 보면, 관리는 진행되는 어떤 일의 성공적인 실시 여부를 다룬다. 그러나 리더십은 진행되는 어떤 일의 새로운 것을 세운다.

▲ 리더는 새로운 것의 비전을 세운다.

▲ 리더는 전화를 걸어 없었던 것을 진행한다.

▲ 리더는 관계를 맺어 새 영역을 세우는 동료를 만든다.

▲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 리더는 교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집어낸다.

▲ 리더는 뭔가 새운 길을 닦기 위에 하는 일의 마침표를 찍는다.

리더는 이런 모든 일을 실현한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항상 뭔가 크고 원대하며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리더는 조용히 뒤에서 넉넉하게 재정적인 재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리더는 치료와 용서를 떼어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베테랑 리더는 젊은 리더와 어려운 대화를 하며 이들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각 예를 통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바로 변화와 진보다.

"관리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다섯 가지 지침이 있다:

관리는 일의 성공적 실시 여부 다루지만 리더십은 새로운 것 세워
정직한 평가, 바른 방향성과 지속성, 완료, 거절, 동료 만들기 필요

1. 최근 '이루어낸' 것을 정직히 평가해야 한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있지도 않을 일이 진행되는 게 있는가? 지난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일 중 순수하게 리더십과 관련된 목록을 잠깐 만들어 보자. 그 목록이 바란 대로 진행되는가? 지연되고 있는가? 어떤 진척을 이루고 있나?

단순히 전혀 리더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2.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새롭고 빛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교회의 발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은 본질적으로 시간 낭비다. 이는 종종 그냥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이며, 사명의 반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전략적인 노력을 굳게 붙들고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일의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3. 최소한 한 분야에 앞서 나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시간을 쓰며 일을 한다. 리더십의 한 부분이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 그래서 리더로서, 매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다고 일이 잘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일이 도움된다. 한 가지, 또는 두세 가지에서, '앞서' 나가는 게 있는가?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다.

4. 덜 중요한 일에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압박을 견뎌야 한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덜 중요한 일을 수락하는 것이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잡아먹는 덜 중요한 일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여유가 없다면, 이제 그런 일에 과감히 '안 된다'고 말할 시간이다. 솔직히 이런 일이 쉬운 건 아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결단'이라는 전략적인 생각을 한다면 수십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펼쳐내야 한다.

5.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

변화와 다양성과 같은, 참신한 생각들이 많다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내고, 도움이 되는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 속한 교회가 작다면, 경영 분야 리더 서너 명을 초청할 수 있다. 속한 교회가 커서 전략적 리더십 분야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맞게 앉히면 된다.

교회 직원이면 목회와 관련된 특별 주변 분야 동료를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일을 감수하더라도,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정치, 사회 갈등 많은 '세르비아', '분열된 사회' 1위

BBC, MORI연구소 주도 세계 27개국 국민 상대로 "분열지수" 설문 결과 보도

BBC는 23일 '글로벌서베이'를 통해 각국의 사회 분열 정도와 관용 정도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전 세계 27개국 1만9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 사람 4명 중 3명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가 '분열됐다'고 답했다.

자국이 분열됐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상위 3개국은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칠레-페루(공동)였다. 1위를 기록한 나라 세르비아는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이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 BBC 세르비아 기자 데얀 아나스타지비치는 "세르비아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꼽힌다. 또 2008년 독립한 코소보와 갈등도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평했다(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A new global Ipsos MORI study, carried out in 27 countries for the BBC as part of its Crossing Divides season, highlights the extent to which people think their society is divided.

가장 '분열된 지역'으로 꼽힌 유럽

특이한 점은 상위 3개국을 제외하고 '우리사회는 분열됐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곳은 유럽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스페인,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상위 10위 안에 포진돼있다. 한국은 77%로 평균치인 76%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10년 전에 비해 '분열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많은 나라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북아메리카, 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55%로 평균인 59%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10년 전에 비해 덜 관용적이 됐다고 답한 비율도 유럽이 제일 높았다.

왜? 유럽은 이민자들과의 갈등, 아시아는 빈부격차 꼽아

국가별 분열에 대한 인식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현지인과 이민자 간 갈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갈등요인으로 뽑은 상위 5개국은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유럽 내 난민 유입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결과로 보인다. 중국, 일본, 한국은 '빈부격차'를 분열의 원인으로 꼽는 사람이 많았다.

관용도 높은 나라, 캐나다 1위.. 한국 최하위

이번 조사에서 한국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관용성 측면이었다. "다른 배경, 문화, 견해에 대해 얼마나 관용적이냐"는 질문에 한국은 응답자의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 27개국 중 26위다. 전 세계 평균 수치는 46% 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가 74%로 1위를 차지했고, 헝가리가 1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웃나라 중국은 65%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답해 부정적 비율이 조사 대상국 중 6번째로 높았다.

또, 한국은 응답자 중 35%가 '다른 정치견해를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1면에서 계속〉

성령강림절은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해야 하는 날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만물위에 높아지신 것을 묵상하는 복된 절기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므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고, 가장 충만해 채워주신다. 떠나가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채우신다.

그러나 미국교회는 성령강림주일에 인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주사 대부흥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할에 강조를 두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단지 "영적 생활" 영역으로 한정되어지고 만다.

갤럽이나 바나에서도, 성령에 관한 실제적인 설문 조사는 거의 없고, "영적 영역(Spiritual care/life)"라는 분야에서만 미국인들에게 설문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성령강림이 바로 교회 즉 공동체의 탄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강조되는 것도 아쉽다. 개인의 영적 성장, 능력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1면에서 계속〉

성찬식은 에드워드 리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분병 분찬 위원으로는 박맹준(뉴욕), 김도완(뉴저지), 민영선(필라), 한인국(중앙), 박준호(카동), 김동현(LA), 정지현(동남), 김동원(서), 김재옥(서중), 김경섭(서남), 박상근(서북남), 송영배(카서), 노광석(유럽), 박형찬(호주), 신현성(뉴질랜드), 강요한(서북), 박종국(일본), 인은희(동북), 이병일(중남미) 목사 등이 수고했으며, 전 총회장 한세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축사는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장 지선묵 목사가 했다.

총회 이틀째인 9일 주요한 이슈들이 회무에서 다뤄졌다.

캐나다동노회가 총회차원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반대성명서와 입장표명하자는 건과 관련, 정책정치위원회의 '타교단 타교회에 대한 간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의 헌의안은 장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찬반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77 반대 86표로 부결돼 결국 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KPCA 교단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번 총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사무총장 직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 규칙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무총장 인선방법과 시무연한을 제한하자는 안은 실행위원회에서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선거조례 18조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자는 안은 선거조례 18조 "총회의 임원과 직원, 총회산하 위원회, 기관 또는 여하단체는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없고 또 특정 후보지지를 위한 여하한 조직도 할 수 없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한국으로 역이민 하는 교포, 한국내 디아스포라 등을 위해 한국에 노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무지역 노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도선교위원회가 지속적인 선교지원과 관리를 위한 유급직 간사를 두기로 한 안건은 진통 끝에 1년간 연구하기로 했으며 서중노회 김길헌 목사의 선교사 파송건과 황성욱 선교사 시무기간 연장청원은 허락됐다.

교육신학위원회는 한국 통합 교단이 결정한 본 교단 출신 목회자가 가입할 경우 30학점 이수와 목사고시를 치르게 한 결정에 대해 정책 정치위원회와 협의해 대응하기로 했다.

코트디브아르 아비장신학교는 3년간 실사를 조건으로 계속해서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분교로 승인하는 것을 허락했고 호주와 뉴질랜드지역의 신학교육과 목사안수 및 가입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기로 했다. 총회직영 신학교 용어사용을 총회인준 신학교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원 사항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서중노회가 헌의한 총회조직에 대한 헌법 제 74조 및 75조에 대한 개정건과 관련, 헌법규례위원회는 실행위원회(위원장과 서기 포함)에 위임해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42회 총회에서 노회통폐합의 임무를 위임받은 노회통폐합위원회는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제44회 총회에는 모든 노회들이 통합을 완결해 통합된 노회들이 모여 총회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서북노회 건의-총회를 북미에서 개회할 것 외에도 뉴욕노회(장다솔), 뉴저지노회(김선복, 김용현, 오철, 정선희) 등 17개 노회 총 40명의 목사고시 청원이 있었다.

사무총장 보고에서는 장세일 사무총장에 대한 독선과 고압적 태도를 성토하면서 사무총장제의 총무환원 헌의 투표까지 이어졌지만 규칙 변경정족수인 2/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장 총장의 임기는 2년을 남겨두고 있다.

또 예년과 달리 43회 총회와 관련한 회의결과를 발표할 순서를 가진 증경총회장단은 '총회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며 임원들과 준비위원회에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풀려난 임현수 목사(캐나다큰빛교회 원로)는 9일 오전 경건회에서 "예복성사 혁명(행1:6-8)"의 말씀을 통해 북한 억류기간 동안의 고난을 간증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통성기도로 마무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회복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
그 모습, 그 내용,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이 열리어 좋은 것만 보게 하옵소서.
코가 열리어 좋은 향취만 들어오게 하옵소서.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아담을 부르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갈을 부르시는 자비의 음성도 듣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에덴의 맛을 빼앗긴 봄에도 맛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쑥국, 미나리 김치, 소고기 국밥, 말만해도 입맛이 감기는
유난히 봄 계절의 음식 맛, 회복 시켜 주옵소서.

흰 쌀밥에 콩이 들고 콩나물 비빔밥은 더 순수한 향취가
골고루 배어있는 감칠맛을 주는 밥맛이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가?

미국산 양념 갈비에 골고루 반찬이 깃들어져 있는 소문난 갈비찜,
좀처럼 질리지 않는 그 맛, 지금은 별 구미가 없음은 웬 말인가?
주님!
평범한 나물 반찬이라도 좋으니 먹는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조금 남아 있는 맛의 잔재가 있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은 곳,
정제된 소금 탕에 몸을 담그고 치료의 온천을 택했으면 하는 맘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싫컨 땀에 젖어 추위의 한에서 자유함을 받아 보는 것,
게다가,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없는 다리를 치료했으면 하는
욕망뿐인데, 이것도 욕심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낮 영적 회복 갈구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 준 많은 영적 중보 기도자들과
안수기도해준 영력 주의 사자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kkiwon2002@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2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2nd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2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18년 5월 22일(화) - 5월 25일(금)** (3박 4일)
2. 총회장소: **Hilton Long Island/Huntington** (www.hiltonlongisland.com)
   598 Broad Hollow Rd. Melville, NY 11747 (Tel. 631-845-1000)
3. 숙 식 비 : 총회 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	2차(3월 15일)	3차(4월 15일)
2인1실(1인당)		$ 439	$ 479	$ 519
1인1실		$ 759	$ 799	$ 840
부부		$ 859	$ 919	$ 999
원로/공로 목사	(2인 1실)	$ 219	$ 259	$ 299
	(부부)	$ 639	$ 679	$ 719

1) 개인 숙박 :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3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총회 전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체류하실 분들은 미리 총회 준비 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송금 안내 :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CPCNY
   * 주 소 : Elder. Paul Lee (이성주 장로)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뉴욕센트럴교회)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Tel. 516-387-9940 Email: kapc42nd@gmail.com

5. 교통안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착공항과 시간, 항공편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뉴욕 John F. Kennedy (JFK) 공항과 LaGuardia (LGA) 공항으로 오셔야 픽업이가능합니다.
   뉴저지 Newark Liberty Airport (EWR)는 픽업이 불가능합니다.
6. 접 수: 첫째 날 (5월 22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이며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개회 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3차 등록 마감일(4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호텔 숙박은 준비 위원회에서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7. 기 타: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 의 처 호텔 : 김원주 집사 (646-249-9191; kapc42nd@gmail.com)
관광 : 임흥섭 목사 (714-917-7205; amenchrist@gmail.com)
총무 : 조덕남 목사 (516-282-6772; chotoknam@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 기 최중현 목사
제42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재덕 목사 서 기 전현수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억만장자의 가정

폴 게티 박물관을 다녀오셨나요?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스', 세잔의 '사과', 그리고 모네의 '건초더미'등을 포함, 약 44,000점의 작품을 소장한 이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로스앤젤레스의 명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지은 폴 게티는 미국 석유 재벌로서 20세기 슈퍼 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76년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재산은 60억불이었는데, 2017년 시세로는 250억불이 넘는다고 합니다(위키피디아).

그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 '엉망장자'이었습니다. 다섯 번 결혼해서 다섯 번 이혼했습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큰 아들은 자살, 53세에 얻은 아들은 12살 때 병사, 또 다른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5개월간 납치를 당했던 손자는, 게티가 유괴범이 요구한 몸값 290만불을 거절함으로 오른쪽 귀를 잘렸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게티씨가 이룬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가 지은 저택은 대궐 같고, 미술관은 극도로 아름답고, 그가 수집한 그림, 도자기, 조각등도 하나같이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게티씨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비참할 정도로 실패한 실패자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이 가정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이란 제도와 가정이란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동시에 가정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주공격 대상입니다. 사단은 아담이 미혼일 때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 또한 사단의 주공격의 대상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고자 공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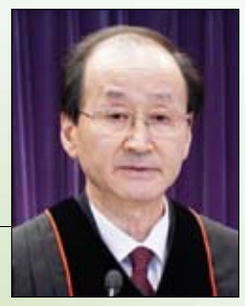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맘몬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 주일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온 가족이 온 맘 다해 정성껏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만이라도 개인의 오락시간을 줄이고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희생해야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게티씨처럼 원 없이 돈을 벌어 원 없이 쓰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은 편리를 주지만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절대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는 있지만. 게티씨의 고백처럼 가정생활에서 비참할 정도로 실패한 '엉망장자'도 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영적인 명문 가정,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영적인 '억만장자'의 복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 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잠17:1, 현대인번역).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뉴욕 사랑의동산교회)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0-24절)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1). 영어로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 가지 인생관들

사도는 성령이 오셔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지배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지만, 살아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 사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우리처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찌하여 바울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일까? 그도 한 세상 사는 인생이고 나도 한 세상 사는 인생이며, 그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왜 그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의 내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은 인생관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 지식이 깊지 못해서 생기는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들을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피크루스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별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먹고 마시며 즐기자"입니다.

스토아주의 인생관도 있습니다. 에피쿠르스주의보다는 좀 지적인 것으로 "인생이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이란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도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평온한 상태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운명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적 인생관도 있습니다. 뭔가 기업을 크게 일구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사업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데모에 앞장서다가 감옥에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생각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들도 있는가 하면,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삶, 종교적인 삶에 빠져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2.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영원까지 바라보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작 몇 십년짜리 짧은 안목으로 사는 인생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는 하나님과 연관된 차원이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즉 자기의 인생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표방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갈 수는 없고 주 예수를 믿어 그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연후에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만민의 죄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놀람과 충격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으로만 여겼던 그분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무서운 고난을 자청하셨단 말인가..!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만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비로소 무엇인 참된 인생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성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첫째로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고 질문하면 한 마디로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마4:4). 떡이나 빵 밥 등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며 읽으라고 권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해주는 말씀설교를 열심히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세우신 종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4. 사는 것은 활동하는 것

둘째로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움직이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자녀인 우리에게 철철 넘치도록 부어졌으며,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3:18-19).

주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숭고한지,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측량조차 할 수 없는데 이를 일만 분의 일이라도 깨닫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해 영혼을 살리는 복음에 남은 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일만 분의 일이라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타나내리라"(요14:21).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5. 사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

셋째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엣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위엣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못 받아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며 받은 사명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아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 있게 헌금을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장성한 성도라고 추켜세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10). 대부분의 성경은 이 구절에 들어있는 '다시, 재(再)'라는 뜻의 '아나'를 빼고 번역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반역으로 분열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시(재) 통일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난 후(계12:9) 하늘나라는 지금 완전한 평화의 나라이지만,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누리를 덮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도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시 통일되는 이 위대한 과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전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빌3:18-21).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잠시 후 사라질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께 받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마지막에는 로마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한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맡기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삶의 초점을 맞추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경을 잘 표현한 구절이 본문 21-24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가 사는 것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산다는 것의 모든 의미는 한 마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고백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3-14).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거부하고 세상 재물을 푯대 삼아 달려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산다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고전9:16).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10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직장 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또 다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 잠을 자고....그게 여러분이 사는 것이라면 지금 인생이 끝나나 10년 20년 후에 끝나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야 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목숨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통일하여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십자가를 푯대 삼아 힘 있게 달려갈 길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erimkang@hot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이기는 성도, 그 힘의 원천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을 앞에 두고-

믿음이 귀하고 좋은 안수집사님 가정에, 딸아이가 몸이 어릴 때부터 좋지를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해서 먼저 이민 와서 살던 형님가정의 도움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다.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고 부모들이 무던히 애를 쓰셨다. 아이는 비록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몸이 약한 편이었지만 그런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며 잘 자라주었다. 그러나 어릴 때 병치레의 영향이었는지, 얼굴의 악관절의 뼈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병을 다시 앓게 되었던 것이다. 고통스럽기도 하려니와 딸의 얼굴이 점점 한쪽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에 부모로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다.

그러던 중 아이가 대학을 마칠 무렵 본격적으로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다. 신체의 다른 부분의 뼈를 떼어 내어, 악관절 뼈에 부합시키는 수술이었다. 한국으로 수술 받으러 가기 전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은 예배드리기를 원했다. 그날 스물세 살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힘들게 보였지만 치료에 대한 소망 때문인지 기뻐서 처음 들어보는 소원도 말하였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양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봄비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인도 하나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흔한 남자친구 한번 만날 기회도 없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축복하며 모두가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몇일 뒤 수술을 위해 경아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또 몇일이 지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주일아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애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수술 후 회복실로 이동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그만 산소호흡이 30분이나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였다. 산소가 뇌로 공급이 되지 않아 뇌의 대부분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감각을 가지고 있고 반응은 하지만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병원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와 후원을 감당하고, 가정은 둘로 나뉘어져 엄마는 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해야 했고, 남편 집사님은 아들과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 8년이 지났다. 팔년 세월동안 엄마는 가끔 이곳의 집을 방문해서 잠시 가족을 돌아보고는 늘 한국의 딸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교회도 8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한국에 계신 지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방문길에 찾아가서 심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두가 간절히 구하였다.

그런데, 글을 쓰던 어제 저녁 무렵 이곳에 사시는 안수집사님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젠 장기기관들이 작용하지 못하고 호흡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젠 목으로 삽관을 하여 음식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장이 궤사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제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의사와 주변 가족들이 이제 아이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려 한다는 것이다. 아내 집사님은 울면서, 이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통곡을 한다. 나 자신도 눈물을 참으면서, 매년 한국을 나갈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 예배드렸는데, 그 얼굴이 아른 거리면서 한국에 계신 집사님에게 참 잘한 선택이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실제로 이만큼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만하면 할 만큼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새벽기도 시간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 집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다시 울컥하였다. 과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에게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지 않도록 결정을 한다하면 당연히 주저할 일인데, 잘 선택했다고 한 나의 말이 나를 다시 한번 더 괴롭게 하였다. 못내 기도가 괴로운 나머지, 기도하기를 멈추고 아버지를 목양실로 불러서 따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 짧고 유한한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에 이별과 분리가 찾아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주의 말씀과 믿음밖에 없음을 말해주며 기도해주었다.

더 이상 생각한 글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채, 멍하니 있다가 과연 세상을 이길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 결국은 짧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언제 내 생명이 다하여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 죽음도 두렵지 않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관점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금번에 쓰려던 글은 다음으로 넘기며, 한국과 미국에 계신 집사님 부부와 나눈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하는 함께 나눈 대화내용의 간략한 스케치이다.

집사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선택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가지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 생명도 바꿀 만큼의 사랑은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투병하면서 아이가 말도 할 수 없고 몸은 몸대로 상하여 뒤틀린 고통을 지난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아이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의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딸아이도 그 사랑 넘치게 받았음을 잘 알 것입니다. 부모의 아픈 마음은 당연하시겠지만, 딸아이를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집사님, 몸의 모든 부분이 정지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으로 숨 쉬는 것만 연장하는 것이 의미없음을 알고 멈추도록 결정하신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의 생명 유무를 집사님이 결정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호흡에 있다 했습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아이의 호흡을 주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아이의 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이를 의탁하여 내어 드린 것입니다.

집사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천국을 사모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사랑만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데, 지옥에 갈 죄인 된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얻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경아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두 분에게 다가올 죽음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아이를 만날 날을 더욱 사모하게 귀한 복이 될 것입니다.

〈14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느 목사님은 사도신경은 캐톨릭에서 온 산물이기에 개신교회가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현재 웬만한 교회는 모두 주일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가디나에서

A: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confession)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교회와 성도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온 청중이 같이 고백함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확고한 신앙고백위에 내(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도신경은 교회에 등록한 온 초신자들이 세례받기 전에 미리 준비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신앙고백 형태로 암송하게 한 것이

기본적 신앙고백인 사도신경 사용에 주저함 없어

사도신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지주의, 아리우스, 가현설 등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될 때 사도신경이라는 기본 신앙고백이 이단으로부터 그들의 정통적인 신앙 지침서가 되어 그들을 이단적인 교리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캐톨릭에 의해 몇 군데 첨가된 내용(음부로 내려갔다, 거룩한 캐톨릭교회 등)을 빼면 사도신경은 여전히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의 손봉호 박사는 "개혁신앙"이란 글에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使徒信經)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공의회에서 의도적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젊은이들과 새로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비기독교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며, 나아가서 이단으로부터 성경적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시도(試圖)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結晶)된 것이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형성(形成) 과정을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신앙고백이 신구(新舊) 기독교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사도신경의 배경을 이루는 신앙의 요약, 신앙규칙, 신앙고백 등은 이미 주후 2세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을 작성하여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이 꼭 사도신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조(Creed)와 신앙고백(confession)이 역사적으로 150개나 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에 대한 답으로서 사도신경은 여러 신조들 중에 대표적인 신경입니다. 신경의 최고문헌은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90년경)와 터툴리안(Tertullian, 주후 200년경)의 신앙규칙들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규칙들이 점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니케아(Nicaea) 신경(주후 325년)과 칼케돈(Chalcedon, 주후451년)회의 후에 오늘날의 신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이나 성만찬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거나 지시하신 것이 아니기에 매 주일 꼭 암송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꼭 매 주일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성경적 토대 하에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놓은 것이기에 주일마다 이 신앙고백을 사용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호(Ho)

인도의 호족은 인도내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르게 코카서스인종으로 분류된다. 그들 대부분은 인도의 북부 Bihar 지역 내에 위치한 Chota Nagpur 고원의 삼림지대에서 생활한다. 호족집단은 인도의 북서부 근처에 밀집된 서부 벵갈, 방글라데시, 네팔의 일부지역과 북부 Orissa 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호어(Maunder어의 Lahore 방언)를 말하기 때문에 인도의 Saints족과 Mounds족들처럼 Maunder어를 사용하는 종족들과 함께 집단을 이룬다.

'호(ho)'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한다. 호족은 그들의 신념에 의해 다른 민족 모두를 이방인 또는 외부인으로 여기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의 독립적인 때로는 고립적인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영제국, 무슬림과 같은 수많은 외부인들이 호족을 지배한 적도 있었으나 그들의 강한 독립성은 힌두의 지배로 부터 그들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삶의 모습

호족은 비록 그들의 30%가 힌두교 신앙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 자신을 인도 카스트제도의 일부분이 아닌 구별된 종족으로 여긴다. 인도를 구성하는 78%의 힌두인과는 달리 호족은 육류를 먹고 쌀로 만든 맥주도 마신다.

호족의 문화는 자연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도의 세속적인 민족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많은 필수품들을 제공해주는 삼림환경 속에서 가장 편안하다. 식물의 뿌리, 잎, 꽃, 목초, 과일, 나무열매, 베리, 버섯, 누에고치 등이 식용, 무역용, 상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들의 주요 농작물은 발효시켜 맥주를 만드는 쌀이다. 토양 밑에서 발견되는 광물의 채광은 도시 근방에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초 산업이다.

촌락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임대료를 관리하는 족장의 지도를 받는다. 집들은 일반적으로 진흙과 야자나무 또는 다른 나무의 잎으로 만들어진다. 한 계절의 끝 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 그들은 축제 또는 향연을 벌인다. '계약축제'라 불리는 주요 축제는 매년 추수 후에 열린다. 축제는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며 약 두 달 동안 계속된다. 새해가 될 때가지 모든 구속과 계약이 중단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결혼식도 많이 거행된다. 전통적으로 호족의 결혼은 신랑의 가족이 chari(신부의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dowry(신부의 가족들이 신랑에게 보내는 혼수 또는 지참금)가 chari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신앙

호족의 69%는 뱀 또는 원숭이와 마법과 신들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령과 같은 씨족의 신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주의자(인간이 아닌 대상에 영이 존재한다고 믿는)이다. 그들은 세상이 자연적 대상물에 존재하는 bongas(정령)로 가득하다고 믿는다. 정령들은 자신들을 달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와 맥주를 정령들에게 제물로 바친다. 사람이 정령을 숭배하면 그의 스승과 그 사람은 shaman(주술사 또는 성직자)이 된다. 주술사는 촌락의 '수호신'에게 호족의 사업을 보살펴 주고 그들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한다.

호족은 사람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개발되는 인격과 성품이라고 믿는다. 그림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의 그림자는 그의 가족이 기거하는 '죽은 집'과 결합된 그의 집으로 돌아간다. '죽은 집'은 그들은 얼마나 존중했는가에 따라 그 가족을 돕거나 괴롭힌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의 일부가 호어로 출판되어 있으며 현재 7개의 선교단체가 호족 가운데 사역중이다. 호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해 그들 중 신자는 단지 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더욱 뜨거운 기도와 선교활동이 강하게 요구된다. 영화 '예수'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은 호어로 번역돼있지 않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슬림 99.9% 모로코에 '변화의 바람'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9.9%인 모로코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1-2년 새 사회 분위기가 소수 종교에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기독교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성도는 이전과 달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모로코는 타종교의 전도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다. 2010년 2월엔 공식적으로 선교사 80여명이 추방당했다.

김요셉(가명) 모로코 선교사는 14일 의료선교사들의 카카오톡 모임인 '의료선교 네트워크 7000운동'에 "현재 관여하고 있는 지하모임 참석자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모로코 기독교인 수가 분명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이들 중에 무신론자가 늘어 30% 이상은 알라를 믿지 않는다"며 "복음을 전해 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 각종 매체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의 뉴스 웹사이트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모로코인 7명을 소개했다. 모로코인이자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며 "더 이상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AFP TV는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로코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국가연합'의 무스타파 목사는 이 방송에 출연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소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모로코 기독교인은 6000여명 정도다.

미국에 거주하며 미디어 선교를 하는 모로코인 라시드 목사는 유튜브에서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족과 이웃에게 배척당하지만 정치적인 종교 탄압은 분명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개혁적이고 실용적 성향의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을 포함해 모든 모로코인의 왕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소수 종교인을 위한 모로코 첫 콘퍼런스'에서 "우리 모로코 왕국은 소수 종교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현지 언론 모로코월드뉴스는 "소수 종교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에도 그는 자신이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 등 모든 모로코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모로코가 아프리카와 유럽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로코가 있는 북아프리카는 위로는 유럽, 아래론 남아프리카로 이어진다. 김 선교사는 "현재 두 지역의 이슬람교 확산은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이 이동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모로코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인 겨냥…印尼서 일가족 6명, 연쇄 자폭테러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에서 성당과 교회를 겨냥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슬람 국가에서 소수 종파인 크리스천을 노린 테러로 보인다. 특히 테러 공격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일가족 조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 일간 콤파스 등은 13일 수라바야에서 벌어진 연쇄 폭탄테러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오전 7시30분쯤 구벙 지역의 가톨릭교회에서 첫 번째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5분 후 인근 교회 2곳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졌다.

현지 경찰은 첫 번째 장소에서 18세와 16세 두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폭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곳에선 어머니가 12세와 9세 두 딸을 데리고 자폭했으며, 나머지 다른 한 곳에선 아버지가 차량 폭탄으로 자폭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토 카르나비안 경찰총장은 일가족이 시리아에서 건너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의 IS 연계 테러조직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가 테러의 배후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동시에 수라바야의 모든 성당과 교회에서 미사나 예배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상태다. IS는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테러 현장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테러범들에 대해 "비열한 행위를 저질렀다. 매우 야만적이고 인간으로서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이번 연쇄테러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IS의 테러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건이다. 인도네시아에서 IS가 자행한 첫 테러는 2016년 1월 수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폭탄·총기 테러로 민간인 4명이 희생됐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도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했다. 12일 밤 파리 관광명소인 오페라 가르니에 인근 몽시니가(街)에서 괴한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괴한은 범행 5분 만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용의자는 체첸 공화국 출신 21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미-북 정상, 내달 12일 싱가포르서 핵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 회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회담 장소로 확정된 것은 이곳이 중립지역인 데다 김 위원장도 전용기를 통해 중간 급유 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국에서 회담이 치러지면서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방식,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사전에 최종 확정되기보다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담판을 통해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40분(한국시간 10일 오후 3시40분)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3명을 태운 특별기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비행기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안으로 들어가 이들을 맞았다.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가 비행기 트랩으로 나서자 "오늘은 특별한 밤"이라며 "축하한다"고 생환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온 적이 없으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는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의 나라를 현실세계(the real world)로 이끌려고 한다고 믿는다.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몇 주 후에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취재진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느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다(It could happen)"고 답해 한때 평양이 회담 장소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새벽 앤드루스 공군기지에는 생환자들을 맞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물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다.

방북 후 억류자 3명을 데려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태운 전용기가 오전 2시26분쯤 먼저 착륙하자 17분 간격을 두고 생환자 3명이 탄 특별기가 활주로에 내렸다. 김동철씨는 "꿈만 같다.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상덕씨는 연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들은 직후 메릴랜드 월터리드 육군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진을 받았다.

북한이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출발하기 1시간 전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은 전했다. 억류자 석방은 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야 결정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90분간에 걸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준비를 아주 많이 한 듯 말이 장황했다"고 설명했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본 교회는 PCUSA에 소속된 라스베가스 최초의 한인교회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지원자격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 (M.Div) 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분
2) PCUSA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4) 미국 이민교회에서 5년이상 담임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구비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과 비젼 & PIF 사본
3) 최근 설교 2회분 (CD or DVD)
4) 대학/신대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3통 (목회자 및 장로 추천 포함)

3. 서류접수안내

• 서류접수 마감은 2018년 7월 16일까지 입니다.
• 서류접수는 이메일 혹은 메일로 접수 합니다.
• 설교는 CD, DVD,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4.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청빙위원장: 장기상 장로
(702.408.2774 / thejangsfam@hotmail.com)
• 접수: 이메일/ thejangsfam@hotmail.com
메일 / 3500 E. Harmon Ave. Las Vegas, NV 89121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8세기부터 종교적 의식으로 자리 잡은 성지순례에 이슬람 제동
세력 확장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동서교회 손잡고 전쟁

예루살렘 탈환, 동방교회 보호 앞세운 십자군 4차 원정으로 재분열
기독교사상으로 서유럽사회 통합됐지만 영주들은 봉건제 확산 꾀해

하나의 뿌리

결국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갈라졌다. 이는 교회역사 전체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동서교회는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할 의지를 상실하였다. 힘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다가 동시에 상대를 파문함으로 공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동서교회가 성난 모습으로 서로의 등을 돌린 후에도 관계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두 교회는 한 뿌리에서 파생되어 함께 성장하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간의 결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1062년, 동방교회의 최고 지도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신학적인 문제를 두고 로마교회의 교황 알렉산더 2세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1072년에는 동방의 비잔틴 제국의 교황 미카엘 7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교회의 통합문제와 투르크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군사요청에 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립관계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1089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이후 교황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내린 파문이 폐기되었고 콘스탄티노플교회 주교들의 생사자 명부에 교황의 이름이 복귀되는 등 두 교회의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져갔다.

동서교회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매우 중대한 사항을 요청하게 되었다. 비잔틴 제국이 급격히 약화되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서방교회를 향해 군사적 원조를 요망한 것이다. 동서교회의 화해와 재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신앙적 뿌리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동방 비잔틴제국의 상황

395년에 세워진 동방의 비잔틴제국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였다. 과거 로마 제국의 땅을 회복하고 중동 지역까지도 진출하는 등 막강한 전제 군주제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뒤, 점점 흥왕하더니 결국 전 세계를 잇는 무역로의 역할이 활발해지면서 유럽에게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다.

특히 비잔틴 제국의 황제 바실리우스 2세가 통치하던 11세기 초에는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을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다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미 확장된 영토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는데, 바실리우스 2세 후계자들은 거의 대부분 강한 군사력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의 치부하는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세금을 과하게 매길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곳곳에서 반란이 일으켰다.

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제국이 크게 약화되었다. 비잔틴 제국이 장악했던 남부 이탈리아는 유럽 북부 지방을 습격한 노르만족, 즉 스칸디나비아 출신 야만족의 침략을 받았다. 한때는 노르만족과 교황청이 동맹을 맺고 이 지역을 공격하자, 이들을 막아내려고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정군을 보내기도 하였다. 북쪽으로는 투르크족의 일원이었던 페체네그족이 약탈을 일삼더니, 결국 세력을 정비해서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상대는 출발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팽창한 이슬람의 세력이다. 이슬람교는 창시자 모하메드가 핍박을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해인 622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이슬람은 두 종파에 의하여 영토가 확장되었다. 다수인 수니파(Sunnites)는 중앙아시아, 시리아, 이베리아 반도를, 소수인 시아파(Shiites)는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지배하였다. 8세기부터 투르크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는데, 셀주크족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동방 이슬람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비록 두 종파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각 지역과 민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들에 의하여 소아시아 영토를 거의 빼앗긴 상태가 되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알렉시우스 1세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재도약을 시도하였다. 제국 내부의 분열과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이미 고갈난 국고와 약화된 군사력에 재활시킬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는 1081년부터 1118년까지 장시간 통치하면서 재정과 군사력을 회복시키고 영토가 확장하여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예루살렘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 되면서, 자연히 8세기부터 성지순례가 종교적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영적 뿌리인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십자가 복음의 전파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지를 방문함으로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 중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퍼져가면서, 성지순례를 신성시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은 동시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라는 것이다.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집착한 이유는 모하메드가 이곳에 와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의 예언자들을 인도하여 알라에게 기도하였고, 그 후 승천하였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637년부터 예루살렘이 이슬람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놓였다. 초기에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직자와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물론, 성지순례의 목적으로 그 곳을 방문한 성도들에 대한 학대도 자행되었다.

많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처음 제도화 되었을 때에는 특정한 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10세기에 클루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집단 성지순례가 이뤄졌고, 10세기말엽에 이르러 대중화 되면서 심지어 가난한 성도들도 참여하는 등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손으로 넘어간 예루살렘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뒤, 성지순례를 동경하던 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1095년 11월, 교황 우르반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 13명의 대주교, 82명의 주교, 4천명의 성직자, 그리고 4만명의 평신도가 운집하였다. 무엇보다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달려온 사절단이 이슬람 세력을 확장으로 인하여 비잔틴 제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군사적 원조를 간청하였다.

결국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원정을 결정하고, 1096년 8월 15일을 출정일로 정하였다. 동서교회 모두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어그러진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런 상황에서, 십자군 원정은 전혀 다른 형태의 성지순례로 간주되게 되었다.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이슬람들의 신성모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앞세워 성지로 향하게 된 것이다. 교황 우르반 2세는 십자군을 호소하는 연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비잔틴제국의 형제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전해오는 살벌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버려진 민족이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인들이 기독교 국가에 침입하여 칼로 사람을 찌르고, 약탈하고, 불을 질러 기독교인들을 내몰았습니다. (중략)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이 고귀한 도시는 지금 원수의 손아귀에 놓여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교도들의 예배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회의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전쟁을 합법화하였다. 십자군 원정은 구원을 보장하는 일이며, 혹시 전쟁에서 죽더라도 순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096년에 첫 십자군 운동이 시작된 이후, 1272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 8차례 시도되었다. 서방 교회가 장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이 불편한 아주 먼 곳에 십자군을 보냈으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십자군 운동이 우리의 기대와 같이 동서교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까?

또 다른 비극

십자군 운동은 동서교회가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낳았다. 1202년부터 1204년 사이에 이뤄진 제 4차 십자군 원정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이다. 십자군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모여 출발하려하였으나, 병력부족으로 지체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또한 바다를 통해 이동해야 하기 위한 뱃삯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베네치아는 십자군에게 헝가리의 자라를 공격하라고 부추겼다. 결국 십자군이 형제 기독교인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폭군으로 변했다.

그 뿐 아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원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성물에 손을 대거나 교회와 수도원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십자군은 방화, 약탈, 신성모독, 그리고 살인으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콘스탄티노플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비잔틴 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증오심과 함께 영원한 충격으로 남게 되었다.

첫 단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중세 서유럽은 기독교 사상으로 사회가 통합되었지만,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하여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영향력을 지닌 영주들의 손을 잡았다. 기독교와 봉건체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예루살렘 탈환 또는 동방교회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십자군이 모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끼어있던 영주들의 속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봉건제의 확산을 꾀하였던 것이다. 사업에 수완이 뛰어난 일반인들에게도 십자군 운동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회는 불필요한 힘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확장에 필요한 진정한 힘을 공급받는다.

covenantcho@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부노회 (Midwest Presbytery)에 소속된 빌립보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합니다.

청빙지원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에 현재 소속 되신 분, 혹은 NAPARC (North American Presbyterian & Reformed Council) 의 정회원 교단 (www.naparc.org 참조)에 소속 되신분
2. 2중언어(영어와 한국어)로 설교 가능하신 분
3.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지원서류및 설교

1. 이력서
2. 신학대학원 (Seminary) 졸업 증명서
3. 총회 목사 고시 합격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목사 2 인)
6. 노회 소속 증명서
7. 설교 한 편
   1) 설교 원고-1500단어 내외 (영어)
   2) 설교 원고에 입각한 약 25분 길이의 설교 CD 또는 DVD 또는 USB (영어편, 한국어편 따로)
8. 가족 사진 한장

지원 절차 및 마감

1. 2018년 7월 16일 (우체국 발신일) 까지 위의 모든 서류와 설교 (CD또는DVD 또는 USB)를 빌립보 장로교회 청빙위원회(아래의 주소)로 우편 (USPS)으로 보낼것
2. 지원 서류와 설교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청빙이 되신 목사님께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Korean Philippi Presbyterian Church
Pastor Invitation Committee
1969 E. Touhy Ave. Des Plaines, IL 60018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하며, 지난 44년동안 "주님사랑, 영혼사랑, 인재양성,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한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 5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자격조건

1. 정규 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남침례교단의 교리와 신학배경을 6개월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3.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담임목사 또는 장년사역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선호 (한국어/영어)
5.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3개월내 촬영한 사진 첨부)
2.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설교 CD/DVD/USB.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4. 목회 비전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및 계획
5.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신앙관,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6. 추천서 2매 (각 추천인의 밀봉날인)

접수마감: 2018년 6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접수는 이메일로(pdf.file)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 사절)**

제출처

-얼바인 침례교회 청빙위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Email: Pastoralcall.ibc@gmail.com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청교도 신앙 (51)

국가, 정치, 교회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추구가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 소망
공공의 복지 위해 개인의 권리 포기하는 ‘언덕위의 도시’ 지향

이런 전통으로 인해 플리머스는 종교적 관용의 중심지가 되었다. 1645년 플리머스 정부의 보좌관들은 양심의 자유를 확산시켜 나아갔고,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종교적 관용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영국에서 독립파를 중심으로 일어나던 이 운동을 지지하였고, 종교적 차별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메사추세츠 주 의회에 제출하였다:

“사회적 평안을 유지하고 정부에 복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는 터키인, 유대인, 교황주의자, 아리우스주의자, 소시니안주의자, 니콜라당, 퀘이커교도들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예외로 할 수 없다(Power)”고 하였다. 이처럼 플리머스 분리주의자들은 그들의 사회 건설에 있어서 성경보다는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종교적 관용 사상은 1650년경에 이르면서 플리머스 전역에 파급되었다. 플리머스는 매사추세츠나 로드아일랜드에서 이단으로 정죄 받은 퀘이커(Quakers)를 받아들여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보다 내적인 빛에 호소함으로 신앙을 주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에 1659년 퀘이커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비록 존 알덴(John Alden)이 이들을 징계할 것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필그림들은 오히려 알덴을 비판하면서 퀘이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은 이들에 대해 관용적으로 대해주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플리머스는 “종교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강력한 보루라 일컬어지게 되었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선구적인 모형으로 인식되었다. 관용적인 사상으로 인한 자유주의 국가의 초석을 다듬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2) 보스턴공동체의 의의 실현

분리주의적인 필그림의 플리머스와는 다르게, 윈스롭(Winthrope)은 청교도 공동체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사회를 뉴잉글랜드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1645년 7월 3일에 행한 연설에서 인간의 자유를 자연적인 혹은 본성적인(natural) 자유와 공적인(civil) 자유로 나누어 말했다.

(가)자연적인 인간과 도덕적 인간의 구분

자연적인 자유는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타락과 함께 죄로 인해 오염되어 죄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이 자유를 사용하면 할수록 악해져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자유 혹은 도덕적인 자유는 도덕법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에 기초하며, 헌법과 같은 규범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에 기초하며, 헌법과 같은 규범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갖게 되는 자유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얻는 자유,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얻는 자유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자유는 늘 죄를 범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자유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마땅하고, 도덕적인 자유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anything)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freedom toward something)를 소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죄를 범하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하면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로 인한 사회적인 혼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언덕 위의 도시’ 건설을 위한 윈스롭의 설교

그러므로 윈스롭과 보스턴의 청교도들은 사회를 붕괴시킨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주의를 막기 위하여 청교도의 사회적 이상이었던 공동체 중심의 ‘언덕 위의 도시(City on a Hill)’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윈스롭은 1630년 신대륙으로 이민할 때 행한 ‘기독교 사랑의 모델(Modell of Christian Charity)’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상호 복종하며 격려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공공의 복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는 무리이다. 비록 우리가 서로 몇 마일씩 떨어진 곳에 살았고, 아주 다른 곳에서 거주했지만 이제 스스로 이 사랑의 끈에 묶인 채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적인 배려가 모든 개인적인 관심보다 늘 우선하게 됨으로 양심만 아니라 순전하고 공적인 정책이 우리를 얽어매도록 하여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몰락한다면 개인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굳게 결합해야 하고 서로 형제애로 대하며, 자신을 위해 남겨 놓은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관용함으로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우리의 것처럼 여기고 몸의 지체처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일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언제나 공동체를 앞세워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공동체 중심의 사회(혹은 국가) 건설을 주장하였다.

(다)청교도들이 추구하던 ‘언덕 위의 도시’ 공동체의 특징

그들이 추구하던 공동체의 특징은 기독교 사랑에 기초를 둔 신앙적 이상향을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규범으로는 순결한 상태에서 주어진 자연법(law of nature)과 거듭난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법(law of grace)이 있다고 하며, 타락으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살 수 없게 되었고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규범은 중생의 열매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며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그 몸을 매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윈스롭은 동료들에게 “신대륙에 도착하면 위선 없이 형제의 살을 나누며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일뿐 아니라 형제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존 코튼은 1630년 3월 윈스롭 일행이 신대륙으로 이민할 때 ‘하나님의 경작지에 대한 그의 약속'(God's Promise to His Plantation)이라는 환송 설교를 통해 “당신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가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였고,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규례에 순종하여 따르며, 몸의 지체처럼 서로 하나가 되며, 형제적인 사랑과 거룩한 관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자”고 주장하였다.

코튼의 동료였던 커네티컷의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는 공익을 위하여 상호간 복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눈뜬 자의 삶

은혜란 주신분이 뭘 주셨는지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것이리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다 살아있네’라고 생명의 벅참을 확인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런 인생이 아닐까.

함께 성경 공부하는 한 자매님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더란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물어보니까 ‘사모님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틀기만 하면 더운물이 콸콸 나오는지요... 수십 년을 물을 틀어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격이 밀려 왔다고...’ 이유인즉 어렸을 때 공동수도를 쓰는 달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렇다 은혜란 자기가 뭘 누리고 살고 있는지 눈이 떠져서 보이는 게 아닐까?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 다닐 땐 전부 다 걸린다. 돌멩이, 나뭇잎, 유리조각... 다 찌르고 아픈 것들이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훨훨 나니까 온 세상이 다 구경거리이다. 우린 늘 애벌레로 살아서 사업도, 자식도, 교회도, 관계도 다 문제다. 그러나 진짜 눈을 뜨면 혼속에 깊은 평안이 밀려와 그 모든 문제는 아예 문제도 아닌 구경거리가 되는데 말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은 교리도 개념도 아니라 그냥 눈이 떠지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 나를 내어 맡기고 사는 게 아닐까. 성경에 보니까 구걸하던 소경은 눈을 뜨자 더 이상 구걸하며 살았다는 말씀이 없다. 사람이 구걸한다는 것은 아직 있어야 할 게 없어서... 부족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일게다. 진짜 눈 뜬 자라면 이렇게 고백할 텐데 말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매일같이 새벽에 도넛가게에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고 말씀하신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다. 한 날은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그 지겹던 도넛 가게가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이 가게가 말도 잘 모르는 이민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렸구나. 내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 다 시켰구나 생각하니... 그래서 그 가게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그렇다. 눈을 뜬 것이다. 눈을 떠보니 ‘여호와이레’ 다 준비되어 있는 세상... 내가 햇빛과 공기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무상으로 다 공급받고 내가 아스팔트를 깔지 않았어도 다 깔려있는 도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고, 내가 그 머리 아픈 의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집 밖에 나가면 모든 분야의 병원이 지천에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세상에 불평할게 있을까... 감사할 것만 찾아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다. 신앙은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주신 몸과 생명, 많은 은사와 지혜 모든 것을 알차게 써서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살았다고 그런 삶을 다 이루고 가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여쭈리라.

영적전쟁의 최대의 파워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 많이 못해도 말씀 많이 몰라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리라. 마귀의 표적은 건강도 재물도 우리가 가진 은사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쁨일 것이다. 기쁨을 빼앗아 가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어있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열 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럴 때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그러고 있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죽어도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선포해야 하리라.

살면서 우리의 미션은 무엇일까? 우리의 미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값있고 귀한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매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에 진하게 우리의 혼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주신 미션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사는 사람일 게다.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면 그 영향력이 피부로 느껴지듯이 눈을 뜬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놓여 있던 모습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에서 타인을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 생애로 바뀌게 되리라. 유행가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있다. 그렇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으리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은 바로 은혜이고 기쁨이고 눈뜬 자의 삶이리라.

changsamo1020@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지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이슈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이슈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웍,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건강한 종말신앙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House는 있으나, Home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따뜻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만 보고 밥 먹는 시간에도 열심히 셀폰으로 채팅하기에 바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과는 눈 맞추고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지 깊은 대화를 나눈지 오래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상에 앉아 찬송하며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많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범죄하여 교도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기들이 볼 때, 한 번도 책을 조용히 읽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악한 시대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창5:22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열매는 사악한 시대에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어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자녀들에게 경건생활의 본이 되는 일은 기적중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자녀들은 이런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창5:21-22에 "에녹이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히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기쁨을 좇아 살았고, 하나님과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슨 계기가 일어나 터닝포인트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두셀라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해졌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텐데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뜻은 이 므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자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므두셀라는 창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므두셀라는 마을을 지키는 보초병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을 공격하려면 므두셀라를 죽여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니까, 언제 므두셀라가 죽을지 알지 못하므로 날마다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7:11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심판이 임했는데, 그 때가 바로 므두셀라 969 세 때. 므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심판이 정확히 임한 것입니다. 한해의 오차도 없이 예언대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시대의 므두셀라 곧, 재림전의 7가지 징조를 2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지금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34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의식, 종말의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하늘이 노랗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죽을 날을 준비하며 집안도 정리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을 뵈올 텐데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싶어, 재산도 정리해서 그동안 못다 한 구제와 선교사업에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나가던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두 달이 지나서 식구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암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진으로 그동안 교회와 선교사업에 돈 많이 써서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지난 두 달처럼 보람 있고 행복한 때는 없었습니다. 지난 두 달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고 날마다 내 영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어둠의 시대에 에녹과 같이 끝까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며, 건강한 종말신앙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회 변혁의 선봉' 주제

기감 미주자치연회, 차기 감독 은희곤 목사 선출

제 26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가 5월 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예광교회에서 열려 은희곤 목사(뉴욕 참사랑교회)를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 추대했다. 은희곤 차기 감독은 올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2년 임기를 시작한다.

미주자치연회 차기 감독 은희곤 목사와 박효성 현 감독, 류도형 선관위원장(왼쪽부터).

'감리회 변혁의 선봉'을 주제로 개회된 미주자치연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혼란을 겪었으나 지난 2016년 극적인 합의를 하고,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먼저 한쪽 그룹의 대표 격인 박효성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으며 이번에 다른 그룹의 대표로 은희곤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한 것.

은 목사의 감독 임기가 끝나는 2020년부터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아니라 간접선거 방식으로 감독을 선출한다. 연회에 참석한 자격자 중에서 추첨으로 동부와 서부 교구가 20명씩을 40명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해 감독 투표를 한다. 누가 선거인단이 될지 모르기에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다.

은희곤 차기 감독은 아멘넷(대표 이종철 집사)과 인터뷰를 통해 "미주자치연회는 지난 시간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는 350여 교회, 400여 교역자가 하나가 돼 이민목회의 내일을 꿈꾸려 한다"며 "이민목회 현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내일에 대한 접근과 모색이 정책으로 창출돼, 이를 개체교회에 이민교회 현장 과제로 제안하려고 한다.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선도해 가는 사인 처치(sign church)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다음 세대와 그들의 교회의 모습과 담길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 목사는 "미주자치연회가 한반도 평화와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씨름하며 고민해 보겠다"며 "이들을 위해 연회내 인적자원 네트워크로 테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반드시 현실적인 정책과 구체적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미주자치연회 개체교회들의 필요(Need)에 주목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격려가 되는, 상생의 길을 가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은희곤 목사는 감신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연합신대원에서 석사와 감신대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목회 및 총회 본부에서 사역하다 2002년 도미했으며, 2009년부터 참사랑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 2018학위수여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우측 아래는 그레이스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인학생들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 2018 학위수여식

본지 박준호 박사 등 14명과 준학석사 총501명 학위수여

그레이스대학교 & 신학교(총장 윌리엄 카티프 박사) 2018 학위수여식이 5월 12일 오전 9시 본교 매나한 오토패딕 캐피털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그레이스대학교 석사 118명, 학사 356명, 준학사 21명과 그레이스신학교 박사 14명, 석사 15명 등 총 5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레이스신학교에서 수여한 박사학위는 문화교류학 박사학위(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Ics) 와 목회학 박사학위(Doctor of Ministry, D.Min)로 D.Ics는 본지 박준호 기자가 '한인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교차문화 의식소통이란 관점에서 본 기독교 언론에 대한 고찰(Christian Media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ith Regard to The Korean American Church)'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국기입장과 학생 및 교수 입장으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아론 크랍트리 학생 직무처장의 환영사, 티모티 벤 로 목사(미시건 랜싱사우스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윌리엄 카티프 총장이 도널드 디영 박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크리스틴 매드 자매가 학부 졸업생 인사를, 저스틴 게스트 형제가 대학원생 졸업생 대표 인사를 했다.

이어 로린다 오웬 박사(본교 교육대학교 학장)가 설교했으며 윌리엄 카티프 총장이 학위수여를 진행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데이빗 허브스터 목사(인디애나 레이크빌 페이스 크리스천 채플)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를 받은 한인은 총 12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화교류학 박사: 박준호 기자, 허귀암 목사, 안승희 선교사, 한종숙 선교사, 정승범 목사, 정원일 목사, 김익만 목사, 김정태 목사, 고신남 목사, 손일 목사 △목회학박사: 김석진 목사, 박현규 목사.

〈박준호 기자〉

손문미 교수를 비롯 구지연 장헬렌 채지수 김지원 홍송희 등이 소고 치며 춤을 추고 있다.

GMU 예배 "춤으로 받으소서"

손문미 교수와 LA 아르곤선교무용단 중심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예배가 손문미 교수와 LA 아르곤선교무용단이 중심이 돼 8일 오후 7시 그레이스 미션 미라클 센터에서 무용 애호가들과 교수 및 학생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현완 학장의 사회와 김철민 장로(CMFM 대표)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손문미 교수와 무용단은 '예수님이 좋은 걸', '주가 나를 일으키신다', '이날은 주가 지은 날', '아리랑 찬송'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거룩한 성전', '저 성벽을 향해, 등의 찬양과 율동을 선사했다. 현재 손문미 교수는 CMFM 선교원에서 무용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공연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강용규 목사가 단상에 올라 성령의 역사 (행 19: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강사 강용규 목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부흥성회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조은성 목사) 부흥성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강용규 목사(서울한신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13일 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집회는 김원태 장로가 기도했으며 조은성 목사 소개로 강용규 목사가 단상에 올라 '성령의 역사'(행 19: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용규 목사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골리앗을 무찔렀으며,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사도직을 감당하며 능력을 나타낸 것 역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부터"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신분제사회가 공고했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당시 먹고살기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먹고사는게 걱정 없게 된다고 해서였다. 하지만 한국이 발전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강 목사는 "성령님의 역사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다.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기도이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부흥성회 첫날인 11일 집회는 '아브라함의 믿음'(롬4:18-25), 둘째 날 12일 새벽집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왕하4:1-17), 둘째 날 저녁집회는 '열린문'(계3:7-13)이라는 제목으로 강용규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PGM 제4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 연다

10월 10-14일, 선교사집중훈련도 함께

PGM세계전문인선교회(국제대표 호성기 목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 4차 세계전문인 선교대회와 제 3차 선교사 집중훈련을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갖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선교사 집중훈련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역과 선교지를 기다리는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현재 238명의 PGM 선교사 중 이 훈련을 통해 10명의 수료자와 24명의 PGM 선교사를 배출한 바 있다.

금번 선교사 집중훈련은 선교의 제 4물결 및 PGM 4대 핵심가치를 비롯해 선교사들의 현장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초교파 선교관계자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느 때 보다 풍성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PGM 4대 핵심가치는 △디아스포라 선교(Diaspora Mission) △Here & Now 선교(H&N Mission): 내가 있는 이곳(가정, 교회, 지역교회,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선교지 △전문인 선교(Professional Mission): 사역적 의미의 전문인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은사, 재능을 복음전파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모든 사람 △지역교회중심 선교(Church Centered Mission): 지역교회(Modality)가 선교의 모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와 협력(Partnership)해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로의 회복이다.

금번 세계전문인선교대회와 선교사 집중훈련에 관심 있는 분은 admin@pgmusa.org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PGM선교회 홈페이지 www.pgmusa.org에서 볼 수 있다.

〈기사제공: PGM세계전문인선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east

KUMC 목회자 여름가족 수양회

2018 동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목회자 여름가족 수양회가 7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메릴랜드 하늘비전교회(담임 장재웅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가족당 360달러, 개인 180달러, 독방 360달러, 통근 50달러. 1차 등록마감은 5월 30일까지이며 이후 등록자는 가정당 400달러, 개인 200달러.

▲문의: (516)504-5612

리빙스톤교회 이전 감사예배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 이전 감사예배가 5월 20일(주) 오후 5시30분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215-29 42Ave, Bayside, NY 11361. 웹사이트 www.livingstonech.net

▲문의: (917)862-0523

가정사역 관련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5월 21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목회 안의 가정사역-가정폭력 관련 지식 및 대처 방법". 참가비는 없으며 간단한 아침과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참석여부 사전연락이 필요하다.

▲문의: (646)618-1012

뉴욕신학대 40주년 기념예배 및 학위수여식

뉴욕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총장 권오현 박사) 40주년 기념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5월 20일(주) 오후 6시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는 1부 40주년 기념예배, 2부 20년 근속 교수들의 감사패 증정과 총장 저서 출판예배, 3부 부총장(이현숙 박사) 취임식, 4부 제37회 졸업생들 학위수여식으로 진행한다.

▲문의: (347)339-7863

축복의 샤워(Teenz HMMS) 캠프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샤워(Teenz HMMS) 캠프가 낮은울타리 필라지부 주최로 8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11일(토) 오후 2시까지 뉴저지 양지수양관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이며, 한영 이중언어로 진행되는 4개의 강의와 기도의 시간, 다양한 Activity, 저녁집회로 진행된다. 강사는 최미나 전도사(라 셀 대학교 교수), 조희창 목사(낮은울타리 미주본부 대표간사). 등록비는 7월 15일까지 대인당 140달러, 이후 160달러.

▲문의: (215)917-2302, (646)300-4790

뉴욕장신 개교4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후원의 밤

뉴욕장로회신학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후원의 밤이 5월 27일(주) 오후 5시 하나님의사랑교회(담임 정석진 목사)에서 열린다. "하나님은 주어, 우리는 동사"라는 주제의 세미나 강사는 신철범 목사(두바이한인교회 담임).

▲문의: (201)374-2432

임마누엘 수양관 5주년 감사예배 및 축하연주회

포코노 임마누엘 수양관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축하 연주회가 6월 10일(주) 오후 6시 플루티스트 제시유 교수 초청 음악회로 열린다. 윤영미 시인, 조수아남 테너, CBSN합창단, 데이빗김 피아니스트 등이 협연한다. 행사는 청솔 쉼터 문학마을이 주관한다.

▲문의: (631)459-6220

메릴랜드 종합 우승...준우승 필라

제12회 미동부 4개주 한인목사회 연합 체육대회

제 12회 미동부 4개주 한인목사회 연합 체육대회가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목사회 주관으로 필라(Whitpain Township Parks & Recreation)에서 개최됐다.

축구, 족구, 배구, 릴레이, 줄다리기 등 5개 종목에 걸쳐 실력을 겨룬 이번 체육대회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종합: 우승 메릴랜드, 준우승 필라델피아, 3위 뉴저지 △축구: 우승 필라델피아, 준우승 뉴욕, 3위 메릴랜드, 4위 뉴저지 △족구: 우승 뉴저지, 준우승 필라델피아, 3위 뉴욕, 4위 메릴랜드 △배구: 우승 메릴랜드, 준우승 필라델피아, 3위 뉴저지 △릴레이: 우승 메릴랜드, 준우승 뉴저지, 3위 필라델피아 △줄다리기: 우승 메릴랜드, 준우승 필라델피아.

경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임준한 목사(대회 준비위원장) 인도로 박종희 목사(메릴랜드 목사회장)가 기도하고, 이재철 목사(대회장)가 시편 1편 1-3절을 본문으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김종윤 목사(뉴저지목사회 부회장)가 했다.

한편 오전 10시에 개회 예배가 예정돼 있었으나, 뉴욕과 뉴저지 팀이 도착하지 않아 10시 15분에 개회 예배를 시작했으며 뉴저지 팀은 10시 20분에 도착했다. 그러나 뉴욕 팀은 11시 10분에 전세 버스가 도착했으며 전세버스와 계약상 오후 4시에 돌아갔다.

뉴욕 팀은 축구와 족구 경기만을 마치고, 배구 경기를 진행하던 중 철수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필라목사회는 완벽에 가까운 준비로 참석자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메릴랜드 팀은 참가팀 중 경기력과 응원 등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이라는 평을 받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늦게 도착한 뉴욕팀을 제외한 메릴랜드, 필라, 뉴저지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창간 30주년을 맞은 '빛과사랑'이 감사예배 및 발행인 이취임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홍석 이사, 박영수 3대 발행인, 조국환 초대 발행인, 권태진 2대 발행인.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부부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회장 이재철 목사, 수석부회장 구자범 목사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정기총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필라 밀알선교센터(단장: 이재철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 사회로 변창국 목사의 기도, 이윤석 목사의 성경봉독(엡1:15-23)후, 이재철 목사가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재철 목사는 "목사도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총신 동문목사님들의 영안이 열리고 각자 처소에서 놀랍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정광희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의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총회는 박성원 회장의 사회로 회원호명, 개회선언, 전희록 낭독(서기 이윤석 목사), 회계보고(회계 박영수 목사), 사업보고(총무 정광희 목사)후, 공천부 모임을 갖고(부장: 박희근 목사, 서기: 이윤석 목사) 신임 회장단을 선임했다.

△회장 이재철 목사 △수석부회장 구자범 목사 △부회장 변창국 목사, 정광희 목사 △총무 이윤석 목사.

신임회장 이재철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더 열심히 동문회를 잘 섬기겠다"라고 인사했다.

3부는 풍성하게 준비된 식사와 아울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으며 4부는 성극 관람으로 이어졌다.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목사와 사모(60명 이상)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별히 신임 회장의 후원으로 Sight & Sound Millenium Theatre에서 뮤지컬 "예수"를 관람하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미주동부총신대 동문회〉

3대 발행인 박영수 목사, 이사 김홍석 목사

'빛과사랑' 창간30주년 감사예배 및 발행인 이취임식

기독교 월간 다이제스트 '빛과사랑'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저녁 6시 감사예배 및 발행인 이취임식을 가졌다.

'빛과사랑'은 1988년 조국환 목사가 샬롬문서선교회를 설립하고 월간지로 발행해오다 2009년 권태진 목사가 2대 발행인으로 취임, 지난 9년간 발행해왔으며 이번에 3대 발행인으로 박영수 목사(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또 이사로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담임)를 영입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허인호 목사 인도로 기도 윤숙현 목사, 말씀 김종국 목사, 찬양 서울음대남성4중창, 발행인 이임사 권태진 목사, 발행인 취임사 박영수 목사, 축하 및 권고 조국환 목사, 감사패 공로패 수여 권태진 목사, 특별음악순서 서울음대남성4중창, 광고, 축도 박영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태진 목사는 이임사에서 자신의 인생여정을 소개하고 신학교에 간 것은 목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무엇을 할지 계획이 없었으나, 조국환 목사를 만나 '빛과사랑'을 인수하고 지난 9년간 정직과 형평성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변호사였던 자신의 전공을 살려 민권에 관심을 갖고 다루고, 교도소 복역 청년이 예수영접한 일, 마사이족 우물파기 등을 기억에 남는 사역으로 회고했다.

박영수 목사는 취임사에서 "성경암송대회로 권태진 목사님과 알게 되면서 발행인의 임무까지 맡게 됐다"며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흥미롭지만 두려움도 있다. 참석자들 모두가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조국환 목사는 참석한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들을 통해 '빛과사랑'이 지금까지 발행돼왔다"고 말하고 빛(하나님의 말씀, 진리, 권능)과 사랑(예수님)의 의미를 소개하며 감격해 했다.

이날 권태진 목사는 13개의 감사패(뉴욕만나교회, 엠파이어여행사, 유니콘인쇄소, 뉴욕예일장로교회, 뉴욕예수교회, 뉴저지성산교회, 목양장로교회, 웨체스타연합교회, 권데이비드 오수 장로, 송현천 장로/송수경 권사, 김정기 권사, 정인국 장로, 바나바선교회)와 4개 공로패(허인호 목사, 이인봉 전도사, 정광호 장로, 이호환 성도)를 준비했다며, 그동안 후원해온 교회와 단체 개인에게 각각 패를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샬롯장로교회 어린이주일 야외예배에서 나성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샬롯장로교회 어린이주일 야외예배 드려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매년 어린이주일에 봄 야외예배를 겸해 드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일 "꽃주일"로 명하며 맥도웰 파크에서 예배를 드렸다.

나성균 목사는 아가서 2장 10-13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며, "이 놀랍고 황홀한 초청에 네 자리 곧 우리 삶에 적용컨대,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 실패와 질병과 우울증의 자리,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자리, 승리와 성공의 자리, 속죄와 만족과 영생의 자리로 가자"고 역설하고 "더 나아가 그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영원히 걷자"고 설교했다.

한편 동 교회는 13일은 어버이주일로, 70세 이상 30여명의 교우들이 축하와 효도를 받았다.

나 목사는 이날 잠언 23장 22-25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를 하려면 첫째, 그분들의 말씀을 청종 곧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하며 둘째, 의와 지혜의 사람이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결국 의와 지혜의 원천되신 예수님을 더욱 잘 따라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고 날마다 신앙의 성장과 함께 부모님께 대한 진실한 효도를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샬롯장로교회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에티오피안교회와 베트남교회와 함께 VBS를 개최하며 27일부터 30일까지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갖는다. 이를 위해 매 주일 교사연합 준비모임을 갖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목회자의 말씀, 기도, 영성" 주제

기독저널, 안희환 목사초청 영적각성집회

기독저널(발행인 임성식 목사)이 주최한 안희환 목사 초청 영적 각성집회가 11일과 12일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렸다.

10일 오전 10시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자의 말씀, 기도, 영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에게 안 목사의 저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를 무료로 증정했다.

인희환 목사는 기성 교단 소속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한국교계 연합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안 목사는 세미나에서 골리앗과의 결전 앞에 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다윗의 준비와 훈련이 있었다"며 기도훈련과 말씀훈련에 대해 강조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안 목사는 이날 중학교 1학년 때 서원하고 말씀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발행인 임성식 목사는 "많지 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차세대 리더로 선정될 만큼 목회적 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기도로 무릎 꿇는 목회자"라고 소개하고 "성경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없어 겪는 기갈이 해소되는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기독저널이 주최한 안희환 목사 초청 영적 각성집회에 앞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안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민자보호교회 1주년 감사예배 및 심포지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인사회 첫 인종증오범죄 대처 매뉴얼 발표

이민자보호교회 1주년 감사예배 및 심포지엄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1주년 감사예배 및 제2회 심포지엄이 5월 3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뉴욕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은 사업 확장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종증오범죄"를 주제로 열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 최초로 인종증오범죄 대처 매뉴얼을 발표했다. 또 매뉴얼은 이보교 가입교회와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김원재 목사(한울림교회 담임의 사회로 기조발제1 빈상석 목사(성경과 인종), 논찬 김진우 목사(후러싱제일교회 청년부 담당, 드리머의 걸음), 기조발제2 현보영 변호사(아시안 이민자 관점에서 본 인종차별), 논찬 박제진 변호사(인종차별 사례), 기조발제3 최영수 변호사(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처 매뉴얼), 논찬 박동규 변호사(최근 인종증오 범죄 통계와 자료) 순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조원태 목사(이보교 IT위원장)의 환영사 후 조건삼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황영송 목사, 성경봉독 이경구 장로, 특송 뉴욕목사합창단, 설교 김정호 목사, 드리머 소개 & 헌금기도 서선옥 장로, 헌금특송 이보교 TF팀, 축도 김홍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보교 전국대회가 7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워싱턴 DC 연합감리교 빌딩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8)309-6980 혹은 이메일 sanctuarychurchny@gmail.com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상처입고 헌신적인 목회자가 주동되는 목사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5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안병권 목사)는 5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간 친목을 도모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가디나선교교회(담임 이호민 목사)에서 열린 정기예배는 안병권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의 기도와 강태광 목사의 설교, 김병용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사우스베이목사회 5월정기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강 목사는 '행복을 주는 사역자'(행8:26-40)라는 제목으로 "학교 동창생들의 모임은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동자인데 목회자 모임엔 상처를 입고 헌신적인 목회자가 주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서 빌립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역이 기쁨의 사역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역자들이 되자"고 강권했다.

예배에 이어 가디나선교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원로목사회 회원들을 접대할 준비와 오는 9월 30일(주) 오후 5시 30분 지역교회들이 참여하는 연합 성가제를 준비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기사제공: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은혜경로잔치에서 한기홍 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앙 멘토 원로목사들을 섬긴다

은혜한인교회 '2018 은혜경로잔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5월 8일 10시30분, 본 교회 친교실에서 남가주와 OC 원로목사 부부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경로잔치'를 열고 감사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잔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한기홍 목사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룻1:15-18)라는 제목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삶을 함께하며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님 족보의 반열에 올랐던 은혜를 누렸듯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노고와 은혜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이범중 목사와 OC 원로목사회 회장 임흥순 목사가 각각 대표기도와 축도를 맡았다.

이어 2부와 3부 순서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나누었고 특별히 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자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국악 무용팀, 드럼 연주, 라인 댄스, 국제 찬양 율동 선교대학의 무용과 은혜평생대학(은혜 시니어스쿨) 밴드팀의 공연은 참석한 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신앙 멘토인 원로목사들을 변함없이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은혜한인교회의 핵심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리: 이성자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지키자"

샬롬장애인선교회 제 19회 경로잔치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제 19회 경로잔치가 지난 1일 오전 11시 중식당 만리장성에서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샬롬장애인선교회의 경로잔치는 창립 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경로잔치에 앞서 박모세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박 목사는 "누가 내 가족인가?"(마 12:46-50)라는 제목으로 "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사회제도가 가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게 가정을 지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형제자매들이고 가족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은 영혼구원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선행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찬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증정했다.

샬롬장애인선교회는 1999년 6월 LA에서 설립되어 남가주를 비롯해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장애인가족초청 야유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음악회, 장학금 수여식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에는 제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음악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샬롬선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목요예배로 모인다.

샬롬장애인선교회 관련 자세한 것은 www.shalommin.com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올바로 가도록"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주최 제35회 국가기도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주최 제 35회 국가 기도회가 지난 5월 3일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제 1부 이우호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중부교역자협회 회장 최국현 목사의 기도에 이어 워스턴커버넌트대학장 금병달 목사가 "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충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미국민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미주군목회장을 맡고 있는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미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조웅규 전국회의원이 "자신은 일제 강점기 시대와 북한정권시대 그리고 원산철수작전시 7000여명이 렌인빅토리호를 맨 마지막으로 타고 나온 시대"라고 말하며,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정부의 내각에 등용된 인재들을 볼 때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강연했다.

미주한인교계의 연합과 관련해 미주장로회신학대학총장 이상명 목사는 "미주한인교계의 일치를 위해, 각계전투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네트워을 통한 4차시대에 걸 맞는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각 교회가 변화되는 시대와 함께 탈바꿈하며 협력 공생하는 정신으로 갈 때 우리 모든 한인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론했다.

이어 '정치와 교회의 분립과 왜 기독인은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나?'에 대한 이우호총 회장의 강론이 있었다.

이 회장은 "기독인의 정치참여는 기독인의 의무이며 특별히 교회가 정치에 반드시 참여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영김 후보를 대신해 남편 찰스김 회장이 방문해 "현 여론조사로 볼 때, 한인들의 투표참여가 큰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며, "1만6000 여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글로벌선진학교 미주본부장 김성우 목사의 인도로 참석자 전원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특별히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통성기도한 후, 김성우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회의를 마친 뒤 이우호 총회장은 조만간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공동회장단 명의로 트럼프행정부에 건의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긴급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제단〉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

LA아동병원 후원위한 자선연주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공연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대표 박현주/디렉터 김경희)와 함께 하는 마더스데이(Mother's Day) 자선 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은혜가운데 막을 올려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피터조 장로의 기도가 있은 후, 오프닝 연주를 위해 단에 오른 단원들은 그동안 노력의 열매인 에델바이스와 도레미송을 연주했으며 이어 진행된 특별 무대와 솔리스트 연주 등 모든 순서가 마쳐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발달장애를 무릅쓰고 한음 한음 이어가는 이들의 연주는 그 어느 연주회보다 아름다웠고 감명 깊은 연주회였기 때문이다.

2014년 나성영락교회 특수 사역부 토요학교 프로그램으로 태동된 남가주 최초의 발달장애인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This Ability Orchestra)는 발달장애인들과 음악재능 기부 봉사자들로 이우러진 단체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This Ability로 이웃과 소통하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여진 단체이며 2016년 좀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교회 밖으로 나와 2017년에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설립, 승인을 받고 활동하며 지금까지 11차례의 크고 작은 행사를 어어 오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 또는 봉사자로 참여를 원하거나 도네이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323)594-2060나 이메일 thisabilityorchestra@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총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친선체육대회

사당동과 양지 캠퍼스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며 사역을 준비했던 총신 동문회 친선 체육대회가 21일(월) 오전 10시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 앞 파크에서 열린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사모 발야구 등이며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문의: (213)663-8050/(213)718-3079

은혜한인교회 설립 36주년 기념 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설립 36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17일(목)부터 20일(주)까지 장학봉 목사(성민교회)를 초청, '복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20일 주일예배는 설립감사예배로 드리며 2018년 신임 임직식도 갖는다. 한편 18일(금) 오전 9시 30분에는 자녀교육 세미나(강사: 정삼숙 사모)가 열린다.

▲문의: (714)446-1000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취임 및 김영길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가 20일(주) 오후 4시 본당에서 열린다. 김영길 목사는 지난 35년간 감사한인교회를 개척해 섬겨왔으며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구봉주 목사는 8년 동안 본 교회 부목사로 섬겨왔다. 한편 감사한인교회는 김영길 목사의 은퇴 후 사역을 위해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를 설립했다.

▲문의: (714)521-0991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KAPC에 가입 또는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M.Div 학위 취득자로 미국목회 3년 이상 경험자. 이중언어를 선호하며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문제가 없는 자. 구비서류는 이력서와 목회철학과 비전, 이민 목회 사명 소견서, 자기 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와 최근 설교 동영상, 목회자 2명 추천서이며 마감은 6월 15일.

▲문의 및 서류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담임목사 청빙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얼바인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 목사교육과정(M.Div.)을이수하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로 5년 이상 담임목사 또는 장년사역 부목사 경력을 가진 자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 미국 내 합법적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학위증명서, 설교 동영상 2편, 가족 소개 및 추천서 2매. 접수마감은 6월 30일. 이메일(pastoralcall.ibc@gmail.com) 또는 우편 메일 가능.

▲문의: (949)857-9425

라모나 쉼터 '만나며 사랑하며'세미나

캘리포니아주 라모나시에 자리한 로고스 하우스 라모나 쉼터에서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가 21일(월)-23일(수)까지 개최된다. 금번 세미나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머슴교회(MD 빌립보교회)세미나 후속 모임으로 머슴교회 10가지 정신 실천의 일환으로 한 영혼의 귀중함을 일대일 제자훈련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익히게 된다. 이번세미나에는 빌립보교회 송영선 원로목사와 송순옥 사모. MI 대학촌교회의 박상춘 목사가 강사로 선다. www.ramonalogos.org.

▲ 문의: mcc3694@yahoo.com 신경섭 목사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5월 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경준 박사

"트럼프 대통령이여,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조국수호집회 가져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남가주지회(회장 김회창 박사)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 조국을 사랑하는 미주3.1여성동지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생장로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여,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목으로 조국 수호 집회를 가졌다.

본 회 최청학 부회장의 사회로 남가주목사회장인 샘신 목사가 기도한 후 남가주교역자회(KECA) 회장인 안신기 목사는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남북의 분단 상황의 해소를 열왕기서와 복음으로 풀어주었다.

이어 일리노이주대학교 박사인 무기전문가이며 유인대 신학원장인 김경준 박사는 "전 미 해군연구소에서 미국 전략무기개발에 참여한 무기체계의 위력에 대한 트럼프의 해법을 제기해 북 핵무기 핵융합시설 자체를 먼저 무력화해야 한다"고 역사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들의 거짓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백악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루과이 선교사인 전종철 선교사의 선교간증이 있었으며 김회창 회장이 '조국수호 특별기도'를 드린 후 최훈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기사제공: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주최 제35회 국가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제로

예성 연차 대회 및 정기총회, 총회장에 윤기순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성결교회 선교 112 연차대회 및 제97회 정기총회’가 14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개막했다. 2박3일간 열리는 총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를 주제로 진행되며 예성 소속 목회자와 선교사 등 총대 500여명이 참석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임원 선거도 이날 치러졌다. 신임 총회장은 윤기순(구로중앙교회) 목사가 자동승계 방식으로 추대됐다. 윤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 직에 서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선교를 중심으로 교단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은 문정민(동산교회)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은 김종상(신수동교회)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윤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직무대행이자 부총회장으로서 설교를 맡았다. 그는 총회 주제와 동일한 제목의 설교에서 “예성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단”이라며 “한국교회의 주역으로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소속으로 형제교단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의 김영수 총회감독이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총회감독은 “그동안 나성과 예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왔다”며 “3개 형제교단이 성결 복음으로 연합해 민족 구원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힘쓸 뿐 아니라 남북 평화 통일에도 크게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무처리는 3일에 걸쳐 진행한다. 군종장교요원 선발기준 신설, 목회자 정년 연장, 원로목사의 총대권 제한 등 지난해 총회에서 건의된 헌장 개정안이 논의된다. 올해 발의된 헌장 개정안은 법제부에 보내져 1년간 연구된다. 예성 총회는 5번의 회무처리 시간마다 출석체크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영상 출석체크 방식을 도입해 총대들의 출석 여부의 신빙성을 높였다.

15일 오후부터 나흘간 예성 해외선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가 성결대 및 강원도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에서 열린다.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열리는 선교대회로, 전 세계 26개국 선교사 96명이 참여한다. 대륙 및 나라별 미래선교정책 등이 논의되며 선교사와 목회자, 신학생이 참여해 작성한 선교비전선언문 등도 발표한다.

“미래세대 투자 않으면 미래 없다”

예장합동 목장기도회…저출산 문제 집중 제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강정훈 서울 늘빛교회 목사)

인구감소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투자 없인 미래도 없다”고 단언하는 강사의 말에 참석자들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는 사상 처음 4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신입생이 없거나 1명에 불과한 초·중·고교가 전국 113개, 문을 닫은 학교가 28개에 달한다.

9일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의 제55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강사로 나선 강정훈 목사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0년엔 현재 200만명 수준인 주일학교 신자가 50만명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두 개의 프로그램으론 주일학교가 한국교회 재부흥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담임목회자와 당회의 헌신’ ‘주일학교 교사의 열정 회복’ ‘크리스천 학부모의 바른 성공관 정립과 자녀양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장기도회는 교단 산하 목회자와 장로 3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중 최대 행사다. 특강과 집회 설교, 기도회를 통해 시대적 흐름, 한국교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난해 기도회에선 대선정국과 국가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와 개혁신앙이 중심축이었다. 올해 관통하는 주제는 ‘다음세대’였다.

같은 시간 ‘다음세대 트로이카 선교운동과 부흥’을 주제로 강의한 라영환(총신대) 교수는 “공동체성, 창의성, 소통 능력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상과 동일하다”며 “교회교육을 통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곧 크리스천의 모습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저녁 집회에선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가 등단했다. 오 목사는 “신앙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청년·대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한국교회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청년부 활동이 아니라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전환되도록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청년들이 처한 사회와 문화적 형편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삶의 역할 모범으로서 장년의 신앙관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개 연합기구 통합 성사까진 산 넘어 산

한교총 · 한기총 · 한기연 합의서 사인했지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최근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통합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군소교단이 사실상 ‘점령’한 한기총과 한기연이 내부반발을 극복하고 통합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개 기구 통합추진 위원장은 합의서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한기총과 한기연은 법인 존속을 주장하지 않고, 한교총도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합의서엔 작성날짜가 빠진데다 한기총 내부 인사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한기총 임원회에선 이태희 통합추진위원장에 대한 자격인정 여부와 ‘기구통합이냐, 이탈한 회원교단의 복귀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성명서까지 배포되면서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고 임원회는 결국 정회했다.

한기연도 겉으론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군소교단 인사들의 리더십 포기와 직원승계 문제가 걸린 만큼 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합의서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교단 사무총장은 13일 “한기총과 한기연이 통합에 나서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했지만 실제론 교권 포기와 직원승계 문제, 통합추진위원장의 대표성 문제가 걸려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3개 단체가 비슷한 일을 하면서 매년 교인들이 낸 30억1000만원의 헌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면서 “한국교회 95%가 소속된 한교총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한기총과 한기연은 재정부족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기총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무총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상태다. 한기연도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표회장 후보나 당선자가 납부한 발전기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3개 기구 통합논의의 ‘1차 데드라인’은 오는 21일이 될 전망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이 “오는 21일 교단 정기총회 전까지 한기총에서 기구통합을 결의하지 않을 경우 전격 탈퇴하겠다”는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B교단 총회장은 “대표회장과 일부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현재의 정치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한기총 한기연이 기득권을 지키며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언젠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사학 설립 · 운영의 자유, 헌법에 명시해야”

‘기독교학교 개헌 · 교육감 선거 어떻게…’ 대토론회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기독교학교는 개헌,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신 목사)는 10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에 있어 기독교학교의 관심사는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느냐’ 여부다.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권을 나타내는 헌법 31조에 ‘국가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안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 사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판결한 바 있다. 허 교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학의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사학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대양 · 세월호 사건…구원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서부지법, 정동섭 목사 상대 제기 손배 청구 2심도 기각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신종열)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목사는 2015-2016년 예레미야이단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정 목사의 발언이 종교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이번에 항소했다가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책임자들의 형사판결에서도 청해진해운을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보고 세월호와 관련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자료는 그동안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관계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확장하는 가치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속칭 구원파에 대한 비판은 제한이 덜해질 전망이다. 특히 2014년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는 교단이나 신도들과 무관하다’는 인천지검 공문의 법적 효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원파는 이 문건을 첨부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수백 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 목사는 “구원파 및 그 지도자인 유병언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인정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 이슬람 등 비판 차단 우려”

동반연, 법무부 청사 앞에서 NAP 규탄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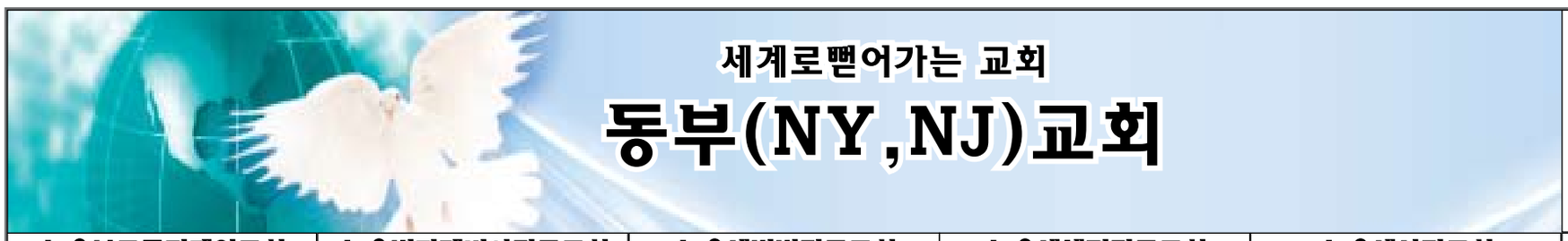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는 1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인권 평등 차별금지 등을 표방하고 있어 말의 느낌상 그럴듯해 보인다”면서 “하지만 서구사회처럼 차별금지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남성 동성애나 시한부종말론 집단의 포교, 급진적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은 전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들이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저지시킨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NAP를 통해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뜻과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대한민국은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면서 “그런데도 NAP는 동성애 다자성애 등 성중독과 이단종교의 왜곡된 교리에 따른 병역기피, 사이비 종교의 포교행위를 무한정 보호해줘야 할 인권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NAP 속 인권 평등 차별금지 논리엔 책임은 없고 무제한적 권리, 방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어디까지가 소수자인지, 차별·혐오인지 사회적 합의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무부가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NAP를 공표해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부 스페니쉬 설교)
Tel.(52)33-3507-4111
E-mail: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선교의 창 (101)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적 시각에서 바라 본 한반도

한민족은 단기 4351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배달의 겨레이다.
남,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극한 정치 이념적 대결을 펼쳐 왔다.
이제 한민족은 선교완성을 위해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에 봄이 왔다. 자연의 봄에 맞추어 정치적 봄도 오고 있다. 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가치는 열매의 계절인 가을을 기대하는데 있다.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우리 조국에는 핵폭탄과 미사일의 위협이 상존했다. 사람들은 혹시 모를 전쟁을 예견하며 피난 가방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4월 27일에는 동족상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때에 두 정상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함과 동시에 화해와 번영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가오는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세기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 만에 있는 놀라운 일이다. 벌써부터 전 세계가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 예상컨대 이 회담은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불과 반년 전만해도 이렇게 정치 환경이 바뀌지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본다. 동양 사상인 명심보감에(明心寶鑑)에 "역천(逆天)자는 망하고, 순천(順天)자는 흥한다"고 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고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조국 땅에 핵이 제거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통일을 향한 물꼬가 트이도록!

1.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차 지역

대륙과 대양의 관문에 있는 한반도는 모두로부터 협공을 받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실제로 지나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이 세력들로부터 약 1,000번에 걸쳐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아 왔다.

이에 반해 문화적으로 본다면 한반도는 대륙의 동양 문화와 대양의 서양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위 동서문화를 모두 융합시켜 한반도라는 토지 위에서 제3의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는 마치 유럽에서 그리스 반도를 떠올리게 된다. 그 땅은 남유럽 발칸 반도 남쪽 끝에 있다. 삼면이 바다로서 한반도도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문명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그 곳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동시에 견인해 낼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독창적인 한류 문화를 만들어 냈다. 현대사에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이슬람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2. 정치 이념적 대결로 인한 참상

한국 전쟁(韓國戰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에 걸쳐 일어났다. 이 동족상잔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었다.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된 통계에 의하면 6·25전쟁으로 한국 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522,604+부상자 940,408+포로 및 실종 435,468=총 사상자 1,898,480명이었다. 북한 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700,000+부상자 1,820,000+실종 및 포로 800,000=총 사상자 3,320,000 명이다. 이를 합산하면 남북한 총 사상자가 5,140,000명이다. 이밖에 미군 사상자 137,250+중공군 사상자 592,000+ UN 15개국 참전군과 소련군을 총 합산하면 외국인 총 사상자는 아마도 일백만 명은 될 것이다.

휴전 이후로도 금년 4월까지 양측의 냉전적 갈등과 대결은 지속되어왔다. 그 실 예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무려 42만5271건에 달한 것으로 유엔사는 집계하고 있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침투와 국지적 도발은 2,953건이다. 이 수치에 남측에서 정정 위반한 통계를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지나간 65년간 남, 북한 측은 휴전선 155마일을 응시하며 막가파식 대결을 펼쳐왔다. 한참 공부하며 산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할 청년들이, 남측의 60만+북측의 120만 등 총 180만 명의 청년들이 총을 든 채 대치했었다. 뿐만 아니라 냉전 체제 대결의 수단이자 심리전 도구로 활용됐던 확성기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이나 서로를 적대시하며 비방해왔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생산적인 일인가?

3. 평화 번영 통일의 당위성

왜 우리는 민족화해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 민족적 의미이다. 세계는 24,000종족 23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만이 분단 가운데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형제간에 다투며 반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6.25 사변을 겪으며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 아픔과 상흔은 한이 되어 가슴앓이로 자리하고 있다. 일천만 명 이산가족의 비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둘째, 경제적 의미이다. 신창민 박사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했다. 분단 및 대치 비용이 역으로 생산성의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Buy Korea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10년 동안 매년 11.25%의 획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냉전 체제의 지키는 구도에서 이기는 구도로 바뀌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의 물류 허브(hub)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시너지적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말 한 마리는 4톤의 무게를 끌게 된다. 그런데 두 마리가 함께 끌면 8톤이 아니라 22통의 무게를 끌 수 있다. 시너지 효과란 이처럼 상승작용을 나타낸다. 남과 북은 상반적이다. 남은 고급 인력과 기술과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값싼 노동력과 많은 지하자원 및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둘이 합하면 인구도 8천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넷째, 선교적 의미이다. 남북의 교류가 왕성해지면 언젠가 북한의 지하교회도 드러나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일천만 크리스천과 중국의 1억 크리스천들이 접하게 된다. 익히 알다시피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는 서로 힘을 합치면 히말라야 산 같은 험산 준령을 넘을 수 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력부대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 크리스천들은 숫자가 많고 고난을 견디어왔으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교회는 고급인력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으나 수적으로 적고 물질문화에 너무 젖어 있다. 이는 서로의 약점을 메꿀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다.

4. 두 가지(Two tracks) 전략

남북이 분단 70년 만에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과 통일로 향하는 길목에 적지 않는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주변국에서는 겉으로 환영을 하지만 내심은 그렇게 편치 않다. 이러한 거부 세력은 소수이기는 하나 한국 안에도 있다. 도대체 얽히고 설킨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단 말인가?

두 가지(Two tracks) 전략이 요구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비둘기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진정성을 의미한다. 쉬운 것부터 행동으로 보이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지난 세기 동안에 불신의 벽이 너무 컸고 그것이 감정적 응어리로 자리하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며 모든 이념을 초월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가 지혜로우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모든 장벽들은 하나씩 허물어 질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주변의 4대 열강을 상대해야 한다. 그 나라들은 우리와 깊은 상관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의존해도 안 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비둘기적 순결함보다 뱀 같은 지혜이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남북만으로 풀 수 없는 역학관계에 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진행하되 4자 회담 나아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주변국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되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참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5. 한민족의 자세

남북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섣불리 환상에 젖어 김치 국물부터 마시면 일을 그릇 칠 수 있다. 우리는 더더욱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정중동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따라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은 조국을 바라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다.

둘째, 가능한 대외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남남 갈등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개 국가가 망하는 것은 대외적인 세력보다 대내적인 분열에 의해서였다. 유대인들은 진보와 보수가 코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대외 적이 나타나면 정쟁을 멈추고 하나로 똘똘 뭉친다. 중국인도 그렇다.

실 예로 모택동의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이 치열한 싸움을 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공합작이 일어나 일본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두 세력은 연합을 멈추고 다시 내전에 들어간 것이다. 한민족은 감성이 강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접근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을 무시한 채 감성이 앞서면 사실관계를 그릇 칠 수 있다.

셋째로 한민족은 신앙심이 투철하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의 대사 앞에서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스라엘은 13억의 아랍권이 포위해 있을 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맺음 말

금년 들어 우리 한반도에 정치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평화, 번영, 통일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인가? 기대가 크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다. 위중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찾으신다. 이 땅의 한민족 크리스천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가 없으면 가정과 교회 등 우리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세계선교도 없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조국과 함께 호흡해야 할 때이다. 피동적으로 금붕어처럼 입만 껌벅이며 누군가 먹여 주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다. 전 세계 한민족이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에게도 꿈을 꾸듯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창조적 소수는 믿음 안에서 역사를 만들고 방관자적 무리들은 주어진 환경에 끌려갈 뿐이다. 우리가 각자 본분에 충실하면서 합심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역사의 현장에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jrsong007@hanmail.net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인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0: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점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GMS브라질신학교 사역에서 본 변혁과 갱신(4)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브라질 GMS신학교의 변화와 갱신

브라질 문화와 상황에 적절한 학점제 주말신학교 운영으로 호평
학위중심에서 자격증중심으로...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설립 준비

1. 신학교들의 현황

30여년동안 섬긴 대부분의 브라질 디아스포라 지역 신학교는 브라질(남미포함)의 신학적인 동향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역에 세운 분교로서 본교의 지시를 받아 전통적인 한국의 신학교 커리큘럼을 따라 운영할 뿐 아니라 브라질을 방문한 목회자들의 특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모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로교의 전통과 보수만을 고집하며 학교를 운영하였기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신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하나님의성회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브라질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사역자를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브라질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재교육을 받고 돌아와 사역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1세 중심의 교회는 한국의 순교적 신앙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분들이 브라질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주축을 이루었기에 복음주의 신앙을 유지하며 선교하는 교회되기 위해 애쓰며 예배당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독교문화를 형성하며 현지사회 영역을 펼쳐 갔다.

2. 이민교회들의 변질

브라질 교포들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면서 경배와 찬양, 각종의 제자양육 프로그램, 각종 이벤트성 평신도 프로그램들이 활개를 치며, 불건전한 신앙운동이 들어와 교회중심의 신앙노선을 붕괴하고 편리주의 신앙, 우리끼리 행복하게 주 안에서 놀고먹고 즐기자는 개인주의 및 쾌락중심의 신앙운동이 펼쳐졌다.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교회는 점차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어가면서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가 이루어져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의 관심이 세상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큰 물질에 관심이 더해갔다. 성령충만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가는데 큰 기쁨이 있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인수=많은 헌금'이라는 공식이 적용될 뿐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 탈세를 했든, 사회악을 조성하는 일에 앞에 서있던 상관없기에 고액헌금을 내신 분 중심의 교회운영이 자랑스레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브라질 교포교회 현실일 뿐 아니라 브라질 현지인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3. 브라질GMS신학교의 커리큘럼의 변화

브라질지부 공동사역인 신학교사역에 변혁을 시도하였다. 지부공동신학교를 지부전체의 의견과 달리한 한 사람이 신학교건물을 차지하므로 부득이하여 신학교를 진행하면서 한 선교부내에 두 개의 신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학점제 주말신학교를 시작했다. 학점제 신학교는 한 달 안에 한 과목을 20시간 집중적 학습하도록 하였다.

가르치는 교수가 강의안을 준비하여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되 특별 실천신학은 브라질 현지인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전문사역자, 전도학은 어린이전도회서 수학 후 자격증을 받게 했으며, 교회음악도 전문인들로 하여금 이론보다 사역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께 전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일학교를 인도해보므로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 2년을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 실행하고, 자신이 실습한 전문사역 소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목사고시를 치르게 하고 있다.

4. 날짜변화-매일신학을 주말신학으로

상황에 따라 매일신학을 주말신학으로 하였는데 브라질 문화와 상황에 적절한 방법이며 학교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홍보하지 않아도 GMS장로교신학교라는 간판만 보고 오순절계통의 교회를 비롯해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그밖에 목회를 소망하는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경찰간부. 변호사, 계리사 등 좋은 직장을 가진 신앙인들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으며 브라질 대한성결교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전도사들의 위탁교육을 의뢰해와 본 GMS신학교에서 4년 또는 5년의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성결교단 마나우스 노회에서 목사안수하므로 6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 날짜의 변화가 가져온 열매이다.

5. 학위중심에서 자격증 중심으로 변혁

브라질GMS 신학교는 학위중심에서 자격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학교로 점점 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있다. 성경교사 자격증, 어린이전도사 자격증, 통역사, 번역사, 영상선교사 등 전문인 영역을 개발하고 어디가나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의외로 반응이 좋으며 열심을 내어 배우고 있다.

6. 아태아대학원 성경대학교

성경만을 가르치는 성경대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실력을 갖춤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안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경만을 가르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한다.

kangsungchuel@gmail.com

〈5면에서 계속〉

집사님,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 일가친척들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가 대학을 들어간 후, 실제로 자녀와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아의 경우 남들이 평생 만나고 얼굴 볼 시간들을 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넉넉하게 엄마와 딸이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낸 시간이었음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떠나가지만, 지난 8년을 엄마의 손길 안에서 먹고 자고 지냈던, 힘들었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외롭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집사님, 경아가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다하기까지 아이 앞에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귓가에 찬송을 들려주시고, 다시 만날 소망 안에서 밝고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환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처음 엄마 품에서 세상을 보았듯이, 주님 품에 평안한 가운데 엄마의 전송을 받으며 안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기도와 말씀의 대화를 나누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생명과 죽음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 사람의 삶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나는 태생,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일생, 그리고 죽음후의 영생을 말한다. 앞선 생의 삶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어머니의 태에서 일생을 준비하고, 이 땅의 한번 뿐인 삶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 준비하지 못하면 인생은 잘못 산 것이다. 헛된 시간들이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작고 초라할 지라도, 영생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라면 그는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경아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였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별명을 천사라고 지어서 불렀다. 그러므로 참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영생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 맡겨진 생명이었기에, 그 사랑하는 부모나 우리 성도들이나 경아는 함께 다시 만날 소망 안에서 잠시 잠깐 헤어지게 될 뿐임을 확신한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싸우며 아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davidnjeon@yahoo.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췌장암

채소나 과일 위주 식사로 예방

-은퇴한 60대 후반의 남성 김모 씨는 한 달 전부터 소화불량과 함께 상복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은 식사 후에 더 심했고 때로는 등 쪽으로 통증이 옮겨갔다. 처음에는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를 복용했으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주일 전부터는 피부와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했고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다. 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약 5킬로그램의 체중이 감소했고 식욕 부진과 피로감을 느꼈다. 김 씨는 과거에 당뇨병은 10년간 앓았지만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 담배는 당뇨병 진단 후 끊었지만 10년 전까지는 하루 한 갑 이상을 피우는 골초였고 술은 식사 후 반주로 포도주를 한잔 마시는 정도였다.

검진상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다. 눈의 흰자위에 심한 황달기가 있었고 명치 부위를 누를 때 통증이 있었다. 복부 초음파상 담도가 확장되어 있었고 췌장의 머리 부분이 커져 있었다. 복부 CT검사로 이것이 확인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췌장암의 진단을 받았다.

췌장은 췌장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와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혈관 내로 분비하는 내분비의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췌장 세포의 약95%는 외분비와 관계되어 있다. 췌장암의 90%는 외분비 세포에 생기며 췌장관에 생기는 암을 대개 췌장암이라고 한다.

췌장암은 아주 흔한 편은 아니지만 예후가 극히 나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다. 한국에서도 2002년 통계로 볼 때 암 발병 순위의 아홉 번째지만 사망률은 다섯 번째로 높다. 이는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이 사망하기 때문이다. 췌장암은 35세 이전에는 드물지만 35세 이후부터 70세까지 나이에 비례해서 발병률이 증가한다.

췌장암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선천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 흡연은 가장 확실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육류 및 고지방 식사는 췌장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습관은 췌장암 발생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췌장암이 더 흔하고 인종적으로 볼 때는 백인보다 흑인들이 췌장암 발병률이 더 높다. 당뇨병 자체는 췌장암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당뇨병 가족력 없이 50세 이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 췌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췌장암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치료시기를 놓치고 늦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현재 췌장암을 미리 별견할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복부 CT 촬영이나 내시경초음파 검사가 췌장암의 진단에 많이 쓰이고 있다.

기독경영 전략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1)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 되는 7단계(상)

이번 컬럼에서는 외르크 크놉아우흐와 요르크 오프레흐트의 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 되는 7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 정체성 견고히 세우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업은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성공하려는 당신의 열정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태도를 더 값지게 보신다.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배우자와 가족, 동역자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2단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업의 2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한다. 때로는 깊은 교제는 당신이 완전히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기 힘으로 더 손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무기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는 때다. 많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갈등하는 '양다리 걸친' 삶에서 벗어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단6:11). 다니엘은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날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일이다.

3단계: 주인 자리에서 청지기 자리로 옮기기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워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자리를 주인에서 청지기로 옮겨야 한다. 기업인으로 당신은 두 가지 형태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 첫째 권위는 진정한 최고경영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마음에 모셔야 하며, 예수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권위는 중간 관리자와 대표, 영적 조언자, 멘토 등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권위 체계를 세우셨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고용인과 피고용인, 국가와 국민,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와 같은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세우신 이러한 권위 구조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

또한, 재정과 관련하여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단지, 십일조만 드리고 나머지 90%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유에 대한 주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며, 기업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자산의 주인이며,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경영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점을 명심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사람의 가치 인정하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업의 4단계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은 낭비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유대감은 회의나 세미나에서 생기지 않고, 팀원들이 날마다 소통하며 부대낄 때 생겨난다. 당신이 동역자의 가치를 인정할수록 당신 자신뿐 아니라 기업에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삶에 오래도록 남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때로는 당신이 기업 대표이지만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좋다. 기업가로서 무엇보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직원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며, 정직하고 투명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일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소유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무장해제 된 상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필수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인으로서 당신은 성경을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계획해야 한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려면,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 다니엘서 5-6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과 특권을 포기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은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로 함정에 빠지고 외적으로 다니엘은 패배한 듯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더 놀라운 권위를 부으셨다.

우리의 은사와 기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재능을 창조한 분이며,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살려주는 영(고전15:42-45)찬172장

사도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비시킴으로서 부활의 독특성을 증거합니다. 첫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42). 죄로 인해 아담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미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립니다. 둘째,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43). 세상에서 천박한 육체는 부활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43). 그리고 여러 환경과 조건에 깨어지는 약한 육체는 어떤 때라도 깨어지지 않는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어디서나 소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강력으로 살아가야합니다.

화 둘째사람(고전15:46-50)찬102장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정리하시고 마지막 아담이고 새 인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둘째사람이십니다. 둘째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그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48). 신분, 성품, 삶의 목표, 그리고 그 방법이 모두 하늘에서 나온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49). 소속은 자연히 부활 후의 형체까지 연결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만 각자의 형체는 그의 공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십니다(50). 둘째사람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형상으로 부활해 그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으로 잠시만 맛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은혜입니다.

수 첫째부활의 비밀(고전15:51-54)찬167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첫 부활에 속한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유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있는 동안 영적싸움을 통해 그 생명을 누리다 저 세계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립니다. 언제 그런 영광이 나타납니까? 첫째,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릴 때입니다(51). 이것은 구속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이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영원세계를 알리는 신호이며 재림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기근, 지진, 영적 혼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다한 것을 포함하고 나아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때입니다. 둘째, 홀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51-52).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부활체로 변화돼 주를 맞이합니다. 셋째, 우리는 사망을 영원히 이깁니다(54). 택자들에게 이 사건은 영원한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목 성도의 승리(고전15:55-57)찬393장

성도는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그리스도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첫째, 죄를 이겼습니다(55-56상).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절대법칙을 철폐하신 것은 사망의 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둘째,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습니다(56하). 죄가 힘을 얻는 것은 율법의 기준인 의, 인, 신(마23:23)에 이르지 못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넉넉히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모두 이기셨습니다(67). 여전히 이 어려운 과제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롬 7장의 영적탄식에 대한 해답(24-25)을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가져온 복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나의 것이니 주를 힘껏 찬양합시다.

금 열매있는 수고(고전15:58)찬197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는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힘써야합니까? 첫째, 견실해야합니다. 이 말은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있는 신실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설 때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흔들리지 말아야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자는 어떤 거짓교훈이 몰려와도 잘 분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골2:6-7). 셋째, 더욱 힘써야합니다. 예정론이나 절대주권사상은 게으름뱅이를 만들려고 주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욱 힘쓰는 자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동태의 삶을 극복하고 그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열심을 가진 능동적인 삶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많은 수고의 사람이 됩시다.

토 참된 연보(고전16:1-6)찬111장

사도가 가르치는 헌금원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합니다. 어떻게 헌금해야합니까? 첫째, 수입에 따라 정해야합니다(2). 사도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각자의 수입에 따라 최선을 다해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하더라도 수입에 따라 그중 최상의 것을 드려야합니다. 둘째, 그들이 받은 은혜에서 나온 열매이어야 합니다(3). 이 연보는 자기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받은 은혜를 도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인식이 없다면 인심 쓰거나 인색함으로 하기 때문에 참 연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연보를 잘 사용해야합니다(3). 모여진 연보는 인정받은 자에 의해 사용돼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사직분이 이를 맡아 교회사역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책임지고 집행해야합니다. 참된 연보를 드립시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인위적 조절과 제한, 드디어 재앙으로 돌아오다

워싱턴포스트, 중국/인도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보도(상)

중국과 인도의 남녀 성비 불균형은 남아존중이라는 문화적 전통 안에서 빚어진 "인재"다. 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7천만 명이나 남아돌기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강간 그것도 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강간하고 살해, 유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성별 식별을 통해 여아라고 판단된 경우, 무자비하게 낙태해, 세계 여아 낙태율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혼 연령을 훌쩍 넘은 남자들은 결혼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으로 돈을 모으고, 집을 짓지만 여자 구하기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따기"다. 그리고 나이 든 아들들과 같이 사는 부모들은 결혼자금 마련과 뒷바라지에 쉴 새가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따라서, 남아 존중/선호 사상과 정부정책이 만들어낸 중국과 인도의 넘쳐나는 남자들 문제를 심층취재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TOO MANY MEN: In China and India, men outnumber women by 70 million. Both nations are belatedly try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policies that created this male-heavy generation).

인류역사상 처음...남자가 여자보다 7천만 명 많아
집, 차, 결혼지참금 준비에 중노동...부모도 힘들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국가의 문화적 선호와 정부 정책, 그리고 현대 의학의 조합은 유례없는 차원의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 중국과 인도의 남성 인구는 여성 인구보다 7천만 명이나 더 많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다양한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독이 전염병처럼 번져 가는가 하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저축률은 올라가는 반면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특정 부동산의 가치가 부풀려지고, 폭력범죄, 인신매매, 성매매의 증가추세와도 궤를 함께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 이웃 나라와 미주, 유럽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준다. 인류는 그 현상을 이제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구학자들은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수백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사회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에서 남녀 인구 차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전체, 폴란드 인구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3천4백만 명의 남성이 평생 한 번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도 거의 하지 못할 것이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된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과 남아선호는 이러한 결과를 낳은 주요 요인이다.

역시 남아선호가 뿌리 깊은 인도에서도 남성이 3천7백만 명 더 많다. 인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나는 여아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미혼 남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결혼 또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역시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 태아 성별 선택은 이제 법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만연해 있다.

문제는 바로 "잉여 남성" 7천만 명 중 5천만 명이 20세 이하라는 점이다. 15-29세 사이의 남녀 인구 차이는 수십 년 내로 정점을 찍게 된다. 성비 불균형이 결혼에 미칠 영향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성들은 몇 안 되는 또래 여성을 두고 같은 나이대의 다른 남성들뿐 아니라 아래위 세대의 미혼 남성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도와 중국은 뒤늦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침체된 삶

신부를 구할 수 없는 남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는 전통적인 가정의 리듬을 깨뜨리고 있다. 성인이 된 남성이 여전히 모친과 함께 살면서, 남아를 선호하던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노인이 된 후에도 아들에게 요리와 청소를 해주느라 고통 받는다. 결혼 여부로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던 남성들은 "남성성의 위기"를 느낀다. 결혼을 하지 못해 사회생활에서 소외되는 남성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남부에 살고 있는 리 웨이빈(30) 씨는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 나고 자란 산골 마을에서부터 10대 때 다닌 공장, 지금 일하는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늘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환경이었다. 지금도 그는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기숙사 방에서 5명의 남성 룸메이트와 함께 지낸다. "여자 친구를 찾고 싶지만 돈도, 기회도 없어요. 여자들은 눈이 높아서 차와 집을 원하죠. 저랑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리 씨가 연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빈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큰 중국 사회에서 리 씨와 같은 남성들은 "마른가지"라 불린다. 그리고 "마른가지"들은 사회에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리 씨가 사는 지역의 남녀 성비는 118 대 100이다.

그는 연애에 대한 희망을 아예 접은 지 오래다. 여가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남성 동료들과 함께 가라오케와 발마사지 숍에 간다. "제 인생이 그래요. 지루하고 외롭죠."

인도 농촌에서 농부와 결혼한 옴 파티 씨는 딸을 원했지만, 아들만 일곱을 낳았다. 물론 아들을 낳을 때마다 마을 전체로부터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재산을 물려받고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아들의 일이니, 아들을 낳는 것은 곧 큰 축복이었다. 아들 일곱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언젠가 며느리들을 맞아 이야기와 집안일을 나누고 손주들을 볼 생각에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그러나 큰아들이 38세가 된 지금, 불법 성감별과 여아 낙태라는 관행은 화살이 돼 돌아왔다. 중매결혼을 추진했지만, 몇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다. 옴 파티 씨는 60세가 된 지금도 다 큰 아들들을 돌보느라 고된 하루를 보낸다. 남편과 일곱 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하루에도 수 파운드씩 구워내야 한다.

같은 마을에 사는 수레쉬 쿠마르(35) 씨는 한 차례 중매결혼 시도가 무산된 이후 신부를 찾지 못했다. 매력적인 신랑감이 되기 위해 뒤늦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노총각이라고 불린 지도 이젠 오래, 쿠마르 씨는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부양할 처자식도 없으면서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말하죠.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부인이 있다면 제게 차도 타주고 목욕은 언제 할지도 알려주겠죠. 결혼 안 한 남자는 사회에서 별 가치가 없어요. 다들 저 사람은 뭐가 문제라서 결혼을 못 했냐고 생각하죠."

신부를 얻기 위한 절박한 노력

중국에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집과 돈,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남성들 간의 경쟁이 군비경쟁에 비유될 정도다. 중국인들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무역흑자를 뒷받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남성들은 예비 장인·장모의 허락을 구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데, 10, 20년 전에는 몇백 달러에 불과했던 평균치가 일부 지역에서는 3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한때 중국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노후 대비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 부모들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희생을 한다.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책무였던 것도 옛날이야기가 됐다.

리 데푸(21) 씨는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중국의 젊은 남성이다. 7년 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골집을 떠나 대도시로 향했다. 가족들이 저축한 돈을 몽땅 털어 고향에 방 10칸짜리 집을 지었다. "지금 제 주변엔 또래 여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을 지어 두는 거예요."

독/자/간/증

박병덕 장로
빅토리아순복음교회(브라질)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4)

다시 국수를 하려면 해놓은 국수를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 중에 걸인 선교할 때 생각이나 '여보, 우리 걸인들이나 줍시다' 하고 철판에 고여 있는 물을 비우고 고기 국물을 붓고 뜨겁게 데워 놓고 걸인들을 불렀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는 곳이라서 걸인들이 많이 모여 들어 줄을 세워 놓고 팔려고 준비한 플라스틱 1회용과 포크를 끼워 퍼주었습니다. 어쩌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모두 다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새로 기름을 붓고 잡채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와 한 그릇 처음으로 달라고 하여 걸인들을 해주느라고 해준 솜씨로 쓱쓱 버무려 한 그릇 퍼주고 눈치를 보니 다 먹고 국물까지 마시고 '베리굿, 넘버원'이라고 엄지를 세우고 돌라가면서부터 손님들이 몰려 다른 사람들은 빗물을 닦기도 전에 나는 다 팔고 집으로와 미처 추리지 못한 돈을 상위에 쏟아놓으니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져 "주여, 감사 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관광유치 모범상' 받고 레스토랑 4곳 운영

제일먼저 감사 헌금을 챙기고 다음날 장사 터로 나가니 또 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더니 나를 도와 천막을 쳐주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돌아가며 나중에 남으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몰려드는데 사방에서 몰려들어 천막에서 할 수가 없어 가게를 얻어야 했고 손님이 날마다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야호' 라고 이름을 붙여 '관광유치 모범상'을 정부로부터 받고 5성의 모범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4곳에 열고 일하는 직원이 100여명과 식솔 400여 명을 둔 자랑스러운 업소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돈을 따라가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을 제시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외면하며 눈앞에서 팔랑대는 돈을 따라갔습니다. 잡을만하면 도망가고 또 잡힐 만하면 도망가고 안간힘을 다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팔랑대는 돈을 잡고 보니 모두 미꾸라지모양 새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세상 쫓아가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계획안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전에 제시하시던 그 계획을 내미시며 하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위대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전할 의무가 있고 이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와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고 지혜를 얻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앉으나 서나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고 넘친 교회 부흥 발전...하나님의 축복

어렵게 시작한 교회는 30년 만에 중남미 땅 끝 복음 선교를 이루고 크게 부흥 발전하여 85개 지교회와 선교사 100여명을 파송하신 김용철 총회장님을 29년 째 모시고 창립 사역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성장과 함께 축복으로 처음 떠날 때 주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창대한 복을 주셔서 한국에 가서 매년 간증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 때 우리 친척들과 문중들이 나의 간증집회에 모두 참석을 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끝〉

SEED ICMS 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을 위한
IN Christ
ICMS2018
(SEED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대 상 : 선교사 후보와 안식년 선교사 및 가정
장 소 : 카나다 밴쿠버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J8 Canada

일 자 : 2018년 6월 25일(월) - 8월 3일(금)
등록비 : 일인당 $1,500/ 자녀일인당 $750 (6세이상)

ICMS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SEED 선교회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Serving the Local Church) 선교사를 양육하여 (Equipping Missionary Workers)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Evangelizing Nations)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Discipling National Workers) 하므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가진 북미주 자생 선교단체로 현재 37개국 140여가정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ICMS는 SEED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ICMS 2018 에서는
직장 휴가를 이용하여 Module 1,2,3 로 나누어 훈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Module 1: 2주 (6월 25일 - 7월 8일)
Module 2: 2주 (7월 9일 - 7월 22일)
Module 3: 2주 (7월 23일 - 8월 3일)
MISSION

프로그램
공동체 훈련 (Community Living)
선임 선교사 멘토링, 강의 및 workshop
예배와 말씀 묵상, 선교적 삶 나누기 (Missional life Journey)
GLOCAL Community Service

주요강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Imitating Christ Life (M 1)
그리스도의 성품
십자가와 복음
말씀과 기도
영적 리더십/ 성령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 Imitating Christ Ministries (M 2)
사도행전 선교적 이슈
영적전쟁 (Spiritual welfare)
타문화 의사전달
언어습득 훈련
자기 진단과 회복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Imitating Christ Mission (M 3)
선교학 및 선교 동향
선교사 열전
사역철학
문화적 전략적 선교

SEED International 자세한 안내는 국제본부 (www.seedtoday.org, seedintoffice@gmail.com, 미국 703-996-0717) 문의 바랍니다.